

2015년 12월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보고서

2015.12.


WR 월드리서치
 WORLD RESEARCH

목 차

제1장. 전체 조사 개요	1
① 조사 목적	2
② 전체 조사 설계	2
③ 조사 내용	3
④ 응답자 특성	4
⑤ 마약류 국민인식도 지수산출방법	5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7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27
①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28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28
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	30
3.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32
②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33
1.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33
2.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36
3.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38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40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활동 접촉도	40
2.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41
④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43
1.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43
2. 마약류 남용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안	45
3. 마약류 및 약물남용 사례 목격 시 신고의향	46
⑤ 중독재활센터 인지도	48



목 차



- ㉔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 위한 민간단체 지원 관련 50
 - 1.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50
 - 2.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 52
 - 3. 자원봉사 참여의향 54
 - 4. 민간단체 기부의향 56

- ▶ 첨부 1. 기초통계표
- ▶ 첨부 2. 조사설문지

Part 1. 전체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그리고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추진 됨

활용 방안

- 전기결과와 시계열 분석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변화를 분석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언론 홍보자료로 활용

2 전체 조사 설계

구분	세부 조사 설계
조사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무선 전화 RDD 이중표집틀을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 → RDD : Random Digit Dialing
유효표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 1,000명 → 95.0% 신뢰수준에서 최대표본오차 ±3.1%p
표본추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역·성·연령별 인구크기에 근거한 비례할당추출
실사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년 12월 18 ~ 20일
조사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윌드리서치

3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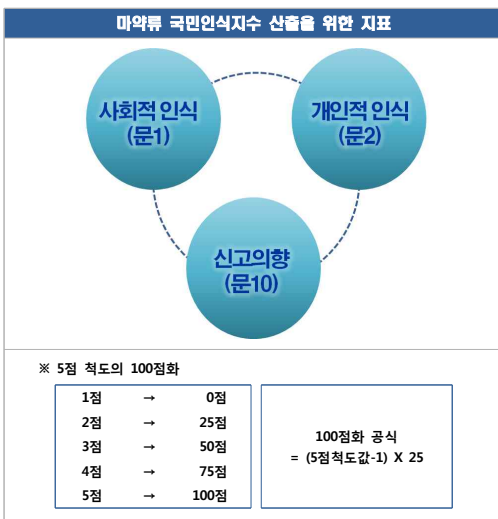
세부 문항
I.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 3)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 인지경로
II.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1)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2) 조기 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3)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III.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활동 접촉도 2)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IV. 중독재활센터 인지 실태 1) 중독재활센터 인지도 2) 중독재활센터 인지 경로
V.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 위한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 및 참여의향 1)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2)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 3) 자원봉사 참여의향 4) 민간단체 기부의향

4 응답자 특성

전 체		사례수(명)	비율(%)
		1,000	100.0
성별	남성	494	49.4
	여성	506	50.6
연령별	19-29세	181	18.1
	30대	190	19.0
	40대	214	21.4
	50대	197	19.7
	60세이상	218	21.8
광역시도별	서울	205	20.5
	부산/울산/경남	159	15.9
	대구/경북	105	10.5
	경기/인천	292	29.2
	광주/전라	105	10.5
	대전/충청	103	10.3
	강원	31	3.1
지역크기별	광역시	464	46.4
	중소도시	436	43.6
	군/읍/면	100	10.0
최종학력별	중졸이하	104	10.4
	고졸	302	30.2
	대재	79	7.9
	대졸이상	503	50.3
	무응답	12	1.2
직업별	화이트칼라	293	29.3
	블루칼라	113	11.3
	자영업	112	11.2
	농/림/수산업	36	3.6
	전업주부	257	25.7
	학생	84	8.4
	무직/무응답	105	10.5
월평균 가구소득별	299만원 이하	323	32.3
	300-499만원	336	33.6
	500만원 이상	217	21.7
	무응답	124	12.4
해외체류 경험	있음	115	11.5
	없음	885	88.5

5 마약류 국민인식도 지수 산출방법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관한 국민인식도 산출 방법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관한 국민인식도 지수화 방식

- 각 성과지표를 가중하여 합산하는 가중합산방식 적용
- $\Sigma(\text{성과지표} \times \text{가중치})$ 단, 가중치의 합은 1.
- 가중합산 방식 적용의 사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국가고객만족도(NCSI)
 - 한국표준협회, 서비스품질지수(KS-SQI)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관한 국민인식도 수준에 대한 해석

국민인식도 수준	의미 해석
0점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전혀 공감하지 않으며, 신고의향(예방노력) 역시 전혀 없음
25점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별로 공감하지 않으며, 신고의향(예방노력) 역시 소극적임
50점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공감도나 신고의향(예방노력)이 반반인 상태
75점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신고의향(예방노력) 역시 대체로 있음
100점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신고의향(예방노력) 역시 적극적임.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관한 국민인식지수 산출 방법

- '사회적 인식'과 '개인적 인식'의 단순평균 값(A)과 '신고의향'(B)에 각각 0.5씩 가중하여 합산(100점)
- 산출방법 예시

산출방법의 예	성과지표	기본 값	국민인식도	
			100점 환산	가중치(w)
문01) 사회적 인식		80	0.5	39(A)
문02) 개인적 인식		76		
문10) 신고 의향		88	0.5	44(B)
마약류 국민인식도 지수		-	1	83점

Part 2. 조사 결과 요약

1 마약류 국민인식도 결과 및 시사점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관한 국민인식도 지수(이하 마약류 국민인식도)는 100점 만점 기준 71.6점

↻ 마약류 국민인식도 지수는 전기조사 '14년(70.4점) 대비 1.2%p 증가

※ 마약류 국민인식도 지수는 2012년도부터 마약류 및 약물남용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인식 및 마약류 신고의향 등 3개 지표로 측정

▶ 마약류 국민인식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국민인식도의 상승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경각심 역시 높아진 결과"로 풀이됨

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국민인식도 기본 값(A) (A*W, 단위: 점)	가중치 (100점 평균: 점)	가중치 (W)	국민인식도 기본 값(A) (A*W, 단위: 점)	가중치 (100점 평균: 점)	가중치 (W)	국민인식도 기본 값(A) (A*W, 단위: 점)	가중치 (100점 평균: 점)	가중치 (W)
사회적 인식	29.70	53.19	0.5	30.50	55.64	0.5	31.98	59.73	0.5
개인적 인식		65.60			66.35			68.20	
신고 의향	39.30	78.59	0.5	39.85	79.70	0.5	39.61	79.23	0.5
마약류 국민인식도 지수	69.0점			70.4점			71.6점		

※ 2012년 마약류 국민인식도 지수는 68.3점

▶ 마약류 국민인식도 지수는 광주/전라(73.3점)와 남성(72.0점), 60세 이상(77.1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대전/충청지역, 학생 등에서 마약류 국민인식도가 낮은 특성을 보임

		사례수(명)	지수(점)	사회적 인식	개인적 인식	신고의향
전 체		1,000	71.6	59.7	68.2	79.2
광역시도	서울	205	70.6	60.4	66.7	77.7
	부산/울산/경남	159	73.0	59.8	70.1	81.1
	대구/경북	105	73.3	58.1	70.0	82.6
	경기/인천	292	71.7	60.2	68.4	79.0
	광주/전라	105	73.3	65.0	69.5	79.3
	대전/충청	103	69.0	57.0	66.0	76.5
강원	31	67.1	47.6	62.9	79.0	

		사례수(명)	지수(점)	사회적 인식	개인적 인식	신고의향
전 체		1,000	71.6	59.7	68.2	79.2
지역크기	광역시	464	71.3	61.6	67.4	78.0
	중소도시	436	71.4	58.5	68.2	79.4
	군/읍/면	100	74.1	56.3	72.0	84.0
성별	남성	494	72.0	61.0	66.9	80.1
	여성	506	71.2	58.5	69.5	78.4
연령	19-29세	181	66.4	54.0	61.2	75.3
	30대	190	67.9	56.6	61.7	76.7
	40대	214	71.3	56.7	68.3	80.1
	50대	197	74.1	64.2	70.4	80.8
	60세 이상	218	77.1	66.2	77.5	82.3
직업	화이트칼라	293	69.8	58.1	63.7	78.8
	블루칼라	113	72.4	54.2	68.8	83.2
	자영업	112	72.7	62.7	67.4	80.4
	농/림/수산업	36	74.5	55.6	75.7	83.3
	전업주부	257	72.6	62.2	72.9	77.7
	학생	84	64.4	52.4	57.7	73.8
	무직/기타	105	76.8	68.3	75.5	81.7
소득	299만원 이하	323	74.3	59.8	72.3	82.4
	300-499만원	336	69.8	59.8	66.4	76.6
	500만원 이상	217	71.1	60.0	67.6	78.5
	무응답	124	70.3	58.9	63.5	79.4
해외체류경험	있음	115	71.7	61.5	64.6	80.4
	없음	885	71.6	59.5	68.7	79.1

▶ 마약류 국민인식도의 시사점 및 활용방안

1. 사회 전반에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신고의향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일부 계층은 위험성에 대한 공감도가 낮은 수준임
2. 특히, 연령층이 낮은 학생층의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교육방안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3. 지역별로 서울 등 대도시 거주자의 인식이 높게 나타나,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실효성있는 성과를 위해서 대도시 중심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마약류 국민인식도 추이 분석

- ◆ 전반적으로 모든 광역시도별에서 국민인식도가 개선된 반면, 대전/충청의 경우 전기조사 대비 인식도가 하락하는 특성을 보임
- ◆ 대구/경북권, 20대 연령층, 블루칼라,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인식도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관한 국민인식도 지수 추이 >

(단위 : 점)

지수구성 구분	2015년				2014년				
	국민 인식도 지수	사회적 인식도 (위험성)	개인적 인식도 (심각성)	신고 의향	국민 인식도 지수	사회적 인식도 (위험성)	개인적 인식도 (심각성)	신고 의향	
전 체	71.6	59.7	68.2	79.2	70.4	54.3	66.4	79.7	
광역시도	서울	70.6	60.4	66.7	77.7	67.7	54.1	63.9	76.5
	부산/울산/경남	73.0	59.8	70.1	81.1	69.6	55.1	65.4	79.0
	대구/경북	73.3	58.1	70.0	82.6	71.3	54.9	65.2	82.5
	경기/인천	71.7	60.2	68.4	79.0	70.4	54.4	63.6	81.7
	광주/전라	73.3	65.0	69.5	79.3	71.5	55.9	71.3	79.4
	대전/충청	69.0	57.0	66.0	76.5	73.2	61.4	70.0	80.7
	강원	67.1	47.6	62.9	79.0	72.9	47.7	68.7	87.6
지역크기	광역시	71.3	61.6	67.4	78.0	69.2	56.0	66.3	77.3
	중소도시	71.4	58.5	68.2	79.4	70.7	55.5	65.3	81.1
	군읍면	74.1	56.3	72.0	84.0	74.1	54.5	71.7	85.1
성	남성	72.0	61.0	66.9	80.1	71.2	58.4	65.3	80.5
	여성	71.2	58.5	69.5	78.4	69.6	53.0	67.3	78.9
연령	19-29세	66.4	54.0	61.2	75.3	65.7	50.3	56.4	77.9
	30-39세	67.9	56.6	61.7	76.7	65.8	52.0	59.1	75.9
	40-49세	71.3	56.7	68.3	80.1	72.2	56.9	69.8	81.1
	50-59세	74.1	64.2	70.4	80.8	73.4	59.6	69.9	82.0
	60세 이상	77.1	66.2	77.5	82.3	73.7	58.3	74.3	81.0
직업	화이트칼라	69.8	58.1	63.7	78.8	70.0	57.0	64.4	79.3
	블루칼라	72.4	54.2	68.8	83.2	67.8	53.2	65.8	76.1
	자영업	72.7	62.7	67.4	80.4	70.5	54.8	64.3	81.5
	농림축수산업	74.5	55.6	75.7	83.3	72.3	61.3	67.1	80.5
	전업주부	72.6	62.2	72.9	77.7	71.1	53.7	71.7	79.5
	학생	64.4	52.4	57.7	73.8	65.6	50.0	55.9	78.2
해외체류 경험	무직/기타	76.8	68.3	75.5	81.7	76.5	63.3	73.6	84.5
	있음	71.7	59.8	72.3	82.4	71.3	56.6	63.9	77.5
없음	71.6	59.8	66.4	76.6	71.7	57.2	66.7	80.0	

②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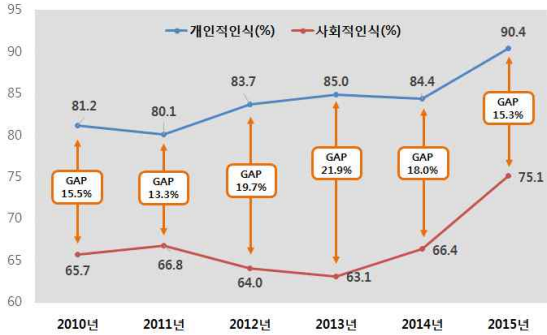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은 75.1%로 나타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은 24.9%
- ⬆ 전기조사(14년 66.4%) 대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8.7%p 증가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	2013년 비율(%)	2014년 비율(%)	2015년 비율(%)	Gap (%)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16.2	17.1	17.7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편	25.0	28.0	31.9	▲8.7
보통	21.9	21.3	25.5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편	29.1	27.6	21.4	▼8.7
전혀 인식하지 못함	7.8	6.0	3.5	

- 일반국민의 90.4%는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은 9.6%로 조사됨
- ⬆ 전기조사(14년 88.4%) 대비 위험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은 심각하다는 의견은 2.0%p 상승하였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은 6.0%p 감소함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	2013년 비율(%)	2014년 비율(%)	2015년 비율(%)	Gap (%)
매우 심각	22.4	24.7	22.1	
다소 심각	33.8	33.0	39.4	▲2.0
보통	28.7	26.7	28.9	
별로 심각하지 않음	13.8	14.3	8.4	▼6.0
전혀 심각하지 않음	1.2	1.3	1.2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위험성)과 개인적인 인식(심각성) 수준은 매년 개인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2014년도를 기점으로 격차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양상('13년 21.9% → '14년도 18.0% → '15년도 15.3%)임
- 이러한 양상은 마약류사범이 2009년 - 2011년도까지 감소했던 상황이, 2012년부터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연도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단위: 명)]

구분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사범수	9,742	9,764	9,255	9,174	9,732	11,875	9,898	10,649	7,709	7,154	7,747	7,546	10,673	10,102
마약	669	685	582	759	1,124	2,198	1,396	958	868	768	1,203	1,211	790	661
향정	7,919	7,902	7,631	7,226	6,771	7,965	7,457	8,521	6,006	5,354	5,313	4,727	7,918	7,959
대마	1,154	1,177	1,042	1,189	1,837	1,712	1,045	1,170	835	1,032	1,231	1,608	1,965	1,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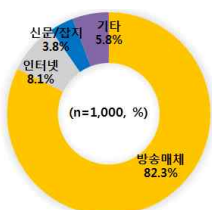
※ 마약류사범 추이 : '11년(9,174명) 5.7%p ▼ → '12년(9,255명) 0.88%p ▲ → '13년(9,764명) 5.5%p ▲ → '14년(9,742명) 0.2%p ▼
 ※ 향정 사범 추이 : '11년(7,226명) 6.7%p ▲ → '12년(7,631명) 5.6%p ▲ → '13년(7,902명) 3.6%p ▲ → '14년(7,919명) 0.2%p ▲
 ※ 출처 : '2014 마약류 범죄백서, '2015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제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연령과 소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마약류, 약물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 (매우심각 + 심각)		마약류, 약물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 (별로 심각하지 않음 + 전혀 심각하지 않음)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지역	■ 대구/경북(65.7%)	■ 대구/경북(65.7%)	■ 대전/충청(12.6%)	■ 광주/전라권(22.0%)
규모	■ 군/읍/면(69.0%)	■ 군읍면(67.4%)	■ 광역시 중소도시	■ 군읍면(17.5%)
성	■ 여성(64.6%)	■ 여성(59.7%)	■ 남성(11.7%)	■ 남성(18.3%)
연령	■ 60세 이상(78.4%)	■ 60세이상(74.9%)	■ 20대(16.6%)	■ 20대(22.5%)
직업	■ 전업주부(72.0%)	■ 전업주부(69.3%)	■ 학생(23.8%)	■ 자영업(22.7%)

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 일반국민의 82.3%는 '방송매체'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비중은 '14년 조사결과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30대 이하 연령층의 이용률을 고려했을 때¹⁾, 지속적으로 인터넷 매체 활용을 강화해야 함
 ⚡ 인터넷 : '14년 12.6% → '15년 8.1%(▼4.5%p)
- 따라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관련 홍보매체로 전연령층에 파급효과가 큰 것은 '방송매체'이나, 20~30대의 경우 '인터넷'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방송매체		인터넷	
	비율	증감	비율	증감
2013년	80.4	▲2.5	10.3	▲1.4
2014년	77.3	▼3.1	12.6	▲2.3
2015년	82.3	▲5.0	8.1	▼4.5

1) 인터넷 이용률 20대=99.9%, 30대=99.8%
 [2014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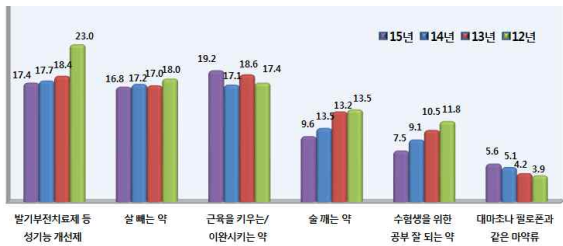
3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1.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 실생활에서 마약류 및 약물 사용경험을 살펴보면, '근육을 키우는 약/이완시키는 약'(19.2%), '성기능 개선제'(17.4%), '살 빼는 약'(16.8%)에 대한 사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술 깨는 약'(9.6%),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7.5%), '대마초나 필로폰 같은 마약류'(5.6%) 순
- 최근 3년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약물의 사용경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근육을 키우는/이완시키는 약'이나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증가한 추이를 보임

(단위 : %)

	13년 (A)	14년 (B)	15년 (C)	Gap (A-B)	Gap (B-C)
㉔ 성기능 개선제	18.4	17.7	17.4	0.7%p▼	0.3%p▼
㉕ 살 빼는 약	17.0	17.2	16.8	0.2%p▲	0.4%p▼
㉖ 근육을 키우는/이완시키는 약	18.6	17.1	19.2	1.5%p▼	2.1%p▲
㉗ 술 깨는 약	13.2	10.8	9.6	2.4%p▼	1.2%p▼
㉘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되는 약	10.5	9.1	7.5	1.4%p▼	1.6%p▼
㉙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4.2	5.1	5.6	0.9%p▲	0.5%p▲



- 20대는 '술 깨는 약'을 제외한 다른 약들에 대한 사용경험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근육을 키우는/이완시키는 약'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함
- 50대 이상 장년층의 경우 '살 빼는 약'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사용경험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연령	'발기부전치료제' 등 성기능 개선제 사용경험(%)					Gap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대	7.3	12.2	11.1	6.9	8.8	▲1.9%p
30대	15.8	20.6	17.1	13.8	14.2	▲0.4%p
40대	27.0	25.6	25.6	22.6	19.2	▽3.4%p
50대	30.2	28.1	18.8	21.8	22.8	▲1.0%p

연령	살 빼는 약 사용경험(%)					Gap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대	29.7	28.1	16.2	18.4	20.4	▲2.0%p
30대	21.5	24.6	16.4	16.3	16.8	▲0.5%p
40대	17.6	16.4	21.2	16.5	20.1	▲3.6%p
50대	13.8	10.4	15.3	22.9	17.3	▽5.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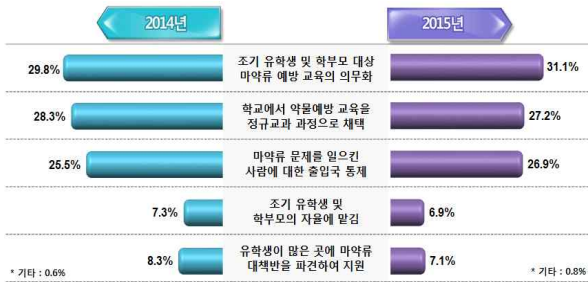
연령	근육을 키우는/이완시키는 약 사용경험(%)					Gap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대	22.9	31.4	26.0	22.6	26.5	▲3.9%p
30대	18.7	18.1	22.5	20.2	21.6	▲1.4%p
40대	21.2	17.3	18.8	17.1	18.7	▲1.6%p
50대	15.9	10.3	13.3	18.7	20.8	▲2.1%p

연령	술 깨는 약 사용경험(%)					Gap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대	8.3	18.8	17.9	12.5	10.5	▽2.0%p
30대	11.5	17.6	14.4	8.5	7.9	▽0.6%p
40대	19.8	14.6	13.5	14.7	10.3	▽4.4%p
50대	15.1	8.2	10.3	9.8	12.7	▲2.9%p

* Gap : (2015년 사용경험률) - (2014년 사용경험률)

2.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 조기유학생들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조기 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의 의무화'(31.1%) 및 '학교에서 약물예방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채택'(27.2%)이라고 응답함
- 조기 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의 의무화는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 제시되어, 조기 유학생들에 대한 마약류 관련 교육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마약류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출입국 통제'에 대한 방안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선택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외의 강력한 법적제재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13년 22.6%(1.7%p▲) → '14년 25.5%(2.9%p▲) → '15년 26.9%(1.4%p▲)



3.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 일반국민의 41.0%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들이 성공적으로 재활치료 후, 같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 '이웃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전년 대비 5.4%p 하락한 수치임
 ※ '15년(41.0%) 대비 '14년(46.4%) : 5.4%p▼
- 마약류 중독 회복자와의 공동생활에 소극적 태도('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어울리지 않겠다' +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55.0%이며, 적극적 반대('이주 요구')는 3.8%로 나타남
-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 심각하다고 생각 할수록 '서로 돕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의견이 높았음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에 따른 마약류 중독 회복자와의 동반거주 의향]
(단위 : %)

마약류 심각성	동반거주의향			
	서로 돕겠다	문제없지만 어울리지 않겠다	타지역으로 이전 요구	관심을 갖지 않겠다
전체	41.0	35.8	3.8	19.2
심각(N=845)	42.7	35.8	4.0	17.3
심각하지 않음(N=155)	25.0	35.4	2.1	37.5

※ 기타 제외

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관련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활동 접촉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활동 중 마약류나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 접촉도는 63.4%로 나타남
 ◆ '대중매체 광고'를 통한 활동 접촉도는 '14년 조사 대비 다소 상승(▲0.5%p)함
- 다음으로 '마약류나 약물남용에 관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20.6%),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6.8%), '마약류나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상담'(5.6%), '중독재활센터 및 재활교육'(4.2%) 순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활동에 대한 접촉도는 '대중매체 광고',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은 증가한 반면,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중독재활센터 및 재활교육'은 감소한 추이를 보임

(단위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활동	13년 (A)	14년 (B)	15년 (C)	Gap (C-B)
①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	62.7	62.9	63.4	▲0.5%p
②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19.4	19.8	20.6	▲0.8%p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	2.8	6.4	6.8	▲0.4%p
④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4.5	6.0	5.6	▽0.4%p
⑤ 중독자 재활 위한 중독재활센터 및 재활교육	3.7	5.8	4.2	▽1.6%p

2.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의 방향은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53.7%)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았음
- 다음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25.0%), '중독자 사회복지 지원 사업'(16.1%),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4.2%) 순



- 50대 연령층은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단위 : %)

	마약류 예방 위한 홍보나 교육 사업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지 지원사업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	
전체	53.7	25.0	16.1	4.2	
성	남성	52.2	24.9	17.4	4.0
	여성	55.1	25.1	14.8	4.3
연령	19-29세	40.3	33.1	19.9	6.1
	30대	45.8	31.1	17.4	5.3
	40대	59.3	17.3	17.3	4.2
	50대	66.0	19.8	12.2	1.5
	60세이상	55.0	25.2	14.2	4.1

5.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1.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32.7%)을 우선 제시함
- 다음으로 '사용자,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강화'(29.8%),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26.5%), '치료, 재활 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강화'(10.7%) 순



- '초, 중, 고 교과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을 확산방지 방안으로 제시한 응답자는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을 향후 사업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사용자,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확산방지 방안으로 선택한 응답자는 '중독자 치료사업'을 향후 사업방향으로 제시함

[마약퇴치운동본부 향후 사업 방향과 마약류 확산 방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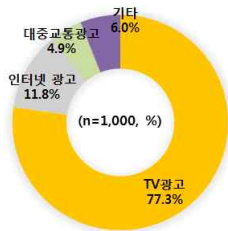
(단위 : %)

향후 사업 방향	초,중,고 교과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사용자,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중매체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치료/재활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	39.5	22.0	32.6	5.8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	20.4	48.4	16.8	13.6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30.4	26.7	20.5	22.4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	28.6	28.6	31.0	11.9

※ 기타/무응답 제외

2. 마약류 남용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안

- 마약류 남용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반국민의 77.3%는 'TV광고'를 제시함
- 다음으로 '인터넷 광고'(11.8%), '대중 교통수단 광고'(4.9%) 등의 순임



- 마약류 및 약물남용 폐해 인지경로,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중 만족스러운 방법, 마약류 남용 방지 홍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방송매체를 활용한 정보전달의 파급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후순위 의견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방안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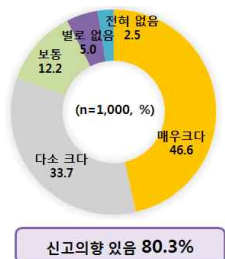
[폐해 인지 경로, 활동 집중도 및 남용 방지 홍보방안]

순위	마약류 및 약물남용 폐해 인지 경로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중 만족스러운 방법	마약류 남용 방지 홍보방안
1순위	방송매체를 통해서(82.3%)	대중매체 및 언론홍보(74.2%)	TV광고(77.3%)
2순위	인터넷을 통해(8.1%)	인터넷 SNS 활용정보(15.8%)	인터넷 광고(11.8%)
3순위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3.8%)	마약퇴치행사 캠페인(3.0%)	대중교통 광고(4.9%)
4순위	주변사람을 통해(2.3%)	마약퇴치 공모전시상식(2.7%)	거리 캠페인 광고(1.6%)

※ 4순위 이상 제시

3. 마약류 및 약물남용 사례 목격시 신고의향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을 목격할 경우, 일반국민의 80.3%는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 신고의향은 전기조사(14년 78.2%) 대비 2.1%p 증가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도가 높을수록, '신고의향'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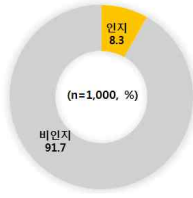


6. 중독재활센터 인지도

마약류 중독자 재활시설인 '중독재활센터' (舊 송천재활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8.3%

- 전기조사(14년 6.9%) 대비 1.4%p 증가
- 남성(10.9%), 50대(12.7%), 경기/인천(9.9%)에서 높게 나타남

'중독재활센터' 인지자의 75.9%는 '전광판, 지하철, TV, 신문 등 대중매체의 소개,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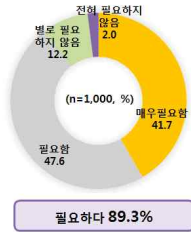


7.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

1.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89.3%로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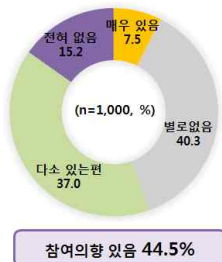
- 전기조사(14년 91.6%) 대비 2.3%p 감소
- 민간단체 활동 지원강화에 대한 공감도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2.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

일반국민의 44.5%는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단체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전기조사(14년 42.1%) 대비 2.4%p 증가
- 특히, 남성(44.9%), 50대(51.3%), 광주/전라(49.5%), 블루칼라(50.4%)에서 높게 나타남



3.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의향자 (n=445) 중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81.6%임.

- 전기조사(14년 79.5%) 대비 2.1%p 증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의향자 (n=445) 중 63.6%는 '민간단체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전기조사(14년 63.1%) 대비 0.5%p 증가

8 총평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및 지수

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국민인식도 (A*W, 단위: 점)	기본 값(A) (100점 평균: 점)	가중치 (W)	국민인식도 (A*W, 단위: 점)	기본 값(A) (100점 평균: 점)	가중치 (W)	국민인식도 (A*W, 단위: 점)	기본 값(A) (100점 평균: 점)	가중치 (W)
사회적 인식	29.70	53.19	0.5	30.50	55.64	0.5	31.98	59.73	0.5
개인적 인식		65.60			66.35			68.20	
신고 의향	39.30	78.59	0.5	39.85	79.70	0.5	39.61	79.23	0.5
마약류 국민인식도 지수	69.0점			70.4점			71.6점		

※ 2012년 마약류 국민인식도 지수는 68.3점

- ◆ 2015년 마약류 국민인식도 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71.6점
- ◆ 마약류 국민인식도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도의 상승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경각심 역시 높아진 결과**” 로 해석됨
- ◆ 한편 3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마약류 관련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교육·홍보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2.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 ◆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 중 사용 경험이 높은 것은 ‘근육을 키우는 약/이완시키는 약(19.2%)’, ‘성기능 개선제(17.4%)’, ‘살 빼는 약(16.8%)’, ‘술 깨는 약(9.6%)’,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7.5%)’, ‘대마초나 필로폰 같은 마약류(5.6%) 순
- ◆ 최근 3년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약물의 사용경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근육을 키우는/이완시키는 약’이나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증가한 추이를 보임
- ◆ 특히,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지속적으로 사용추이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 조기유학생들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조기 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의 의무화(31.1%)’ 및 ‘학교에서 약물예방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채택(27.2%)’이라고 응답함

※ 조기 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의 의무화는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 제시되어, 조기 유학생들에 대한 마약류 관련 교육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 일반국민의 41.0%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들이 성공적으로 재활치료 후, 같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 ‘이웃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견을 제시

※ 마약류 중독 회복자와의 공동체 형성에 대해 돕겠다는 의견은 전년도 대비 5.4%p 하락하였으며, 소극적태도가 과반수 이상(55.0%)을 차지하여, 마약 중독 회복자들의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정책적 홍보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활동 중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 접촉도는 63.4%로 나타났고, 다음은 ‘예방교육이나 캠페인(20.6%)’,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6.8%)’ 등의 순

※ 대중매체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지만, 연령별 활용매체 특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분석됨

- ◆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의 방향은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53.7%)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았고 다음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25.0%)’,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사업(16.1%)’,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4.2%)’ 등의 순

※ 조기유학생의 교육 필요성, 마약류-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교육 시간 배당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의 향후 사업방안 역시 방지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4.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32.7%)을 우선 제시함
- ◆ 마약류 남용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반국민의 77.3%는 'TV광고'를 제시했고, '인터넷 광고'(11.8%), '대중교통수단 광고'(4.9%) 등의 순임
 - ※ TV광고의 효과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3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인터넷 활용률이 95%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연령별로 차별화된 홍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5. 중독재활센터 인지도 및 민간단체 활동 관련

- ◆ 마약류 중독자 재활시설인 '중독재활센터(舊 송천재활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8.3%이며, 인지자의 75.9%는 '전광판, 지하철, TV, 신문 등 대중매체의 소개,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됨.
 - ◆ 한편,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9.3%로 매우 높은 수준
 - ◆ 일반국민의 44.5%는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단체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민간단체 활동 참여의향자(n=445) 중 자원봉사 참여의향 : 81.6% ('14년 79.5%)
 - 민간단체 활동 참여의향자(n=445) 중 민간단체 기부의향 : 63.6% ('14년 63.1%)
- ※ 민간단체의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에 대한 참여·기부의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참여채널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일반국민 10명 중 7명 이상(75.1%)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반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24.9%로 나타남.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위험성과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77.8%로 나타나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 및 체감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심각성 인식	위험성 인식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심각하다	77.8	22.2
심각하지 않다	50.0	50.0

- 그러나, 22.4%는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과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사회구성원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은 남성(76.1%), 60세이상(79.4%), 광주/전라(81.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 반면, 여성(25.9%), 40대(29.9), 강원(38.7%), 중졸이하(30.8%)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았음.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단위 : 명, %)	사례수	충분히 인식 (A)	대체로 인식 (B)	보통 (C)	별로 인식못함 (D)	전혀 인식못함 (E)	종합결과		
							인식 (A+B+C)	비인식 (D+E)	
전 체	1,000	17.7	31.9	25.5	21.4	3.5	75.1	24.9	
성별	남성	494	19.2	33.0	23.9	20.2	3.6	76.1	23.9
	여성	506	16.2	30.8	27.1	22.5	3.4	74.1	25.9
연령	19-29세	181	9.9	29.3	33.1	22.1	5.5	72.4	27.6
	30대	190	10.5	33.7	31.6	20.0	4.2	75.8	24.2
	40대	214	14.0	32.7	23.4	25.7	4.2	70.1	29.9
	50대	197	25.4	29.9	22.3	20.8	1.5	77.7	22.3
	60세이상	218	27.1	33.5	18.8	18.3	2.3	79.4	20.6
광역 시도	서울	205	15.1	33.7	30.2	19.5	1.5	79.0	21.0
	부산/울산/경남	159	22.0	26.4	23.3	25.2	3.1	71.7	28.3
	대구/경북	105	14.3	37.1	20.0	23.8	4.8	71.4	28.6
	경기/인천	292	17.1	34.9	23.6	20.2	4.1	75.7	24.3
	광주/전라	105	24.8	30.5	25.7	18.1	1.0	81.0	19.0
최종 학력	대전/충청	103	16.5	28.2	28.2	21.4	5.8	72.8	27.2
	강원	31	9.7	19.4	32.3	29.0	9.7	61.3	38.7
	중졸이하	104	31.7	22.1	15.4	27.9	2.9	69.2	30.8
	고졸	302	20.2	32.5	27.2	16.9	3.3	79.8	20.2
	대재	79	11.4	26.6	32.9	21.5	7.6	70.9	29.1
직업	대졸이상	503	13.7	35.0	25.6	22.5	3.2	74.4	25.6
	무응답	12	41.7	8.3	16.7	33.3	0.0	66.7	33.3
	화이트칼라	293	12.3	36.9	24.6	23.5	2.7	73.7	26.3
	블루칼라	113	15.9	25.7	23.9	28.3	6.2	65.5	34.5
	자영업	112	23.2	27.7	32.1	10.7	6.3	83.0	17.0
	농/림/수산업	36	19.4	25.0	13.9	41.7	0.0	58.3	41.7
	전업주부	257	19.5	33.1	26.5	18.7	2.3	79.0	21.0
학생	84	10.7	25.0	34.5	22.6	7.1	70.2	29.8	
무직/기타	105	29.5	34.3	17.1	18.1	1.0	81.0	19.0	

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 일반국민 10명 중 9명 이상(90.4%)이 개인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심각하다(매우 심각 + 다소 심각 + 보통)'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심각하지 않다(별로 심각하지 않음 + 전혀 심각하지 않음)'는 의견은 9.6%.
- ▲ 전년도에 비해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도는 6.0% 상승함.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 「2013년 마약류 범죄백서」(2014,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권)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 '13년 적발된 마약류 전체 사범수 : 총 9,764명 → '12년 대비 5.5% 증가
- ▲ '13년 적발된 마약사범수 : 총 685명 → '12년 대비 17.7% 증가
- ▲ '13년 적발된 향정사범수 : 총 7,902명 → '12년 대비 3.6% 증가
- ▲ '13년 적발된 대마사범수 : 총 1,177명 → '12년 대비 13.0% 증가

[연도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단위: 명)]

구분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사범수	9,742	9,764	9,255	9,174	9,732	11,875	9,898	10,649	7,709	7,154	7,747	7,546	10,673	10,102
마약	669	685	582	759	1,124	2,198	1,396	958	868	768	1,203	1,211	790	661
향정	7,919	7,902	7,631	7,226	6,771	7,965	7,457	8,521	6,006	5,354	5,313	4,727	7,918	7,959
대마	1,154	1,177	1,042	1,189	1,837	1,712	1,045	1,170	835	1,032	1,231	1,608	1,965	1,482

* 출처 : 「2013 마약류 범죄백서」(2014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권)

- ❖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여성(92.5%), 60세이상(95.9%), 대구/경북(92.4%), 고졸(94.4%)에서 높았음.
- ❖ 반면, 남성(11.7%), 19-29세(16.6%), 서울(10.7%), 학생(23.8%)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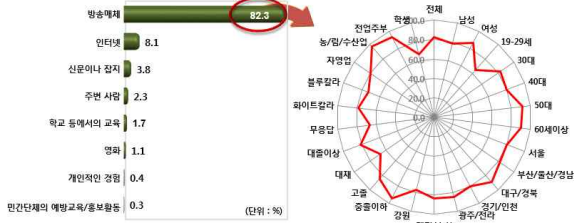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단위 : 명, %)	사례수	매우 심각함 (A)	다소 심각함 (B)	보통 (C)	별로 심각하지 않음 (D)	전혀 심각하지 않음 (E)	종합결과	
								심각 (A+B+C)	심각안함 (D+E)
전체		1,000	22.1	39.4	28.9	8.4	1.2	90.4	9.6
성별	남성	494	22.5	35.8	30.0	10.3	1.4	88.3	11.7
	여성	506	21.7	42.9	27.9	6.5	1.0	92.5	7.5
연령	19-29세	181	14.4	35.9	33.1	13.3	3.3	83.4	16.6
	30대	190	11.6	37.9	38.4	10.0	2.1	87.9	12.1
	40대	214	21.0	39.3	31.8	7.9	0.0	92.1	7.9
	50대	197	24.9	41.1	25.4	8.1	0.5	91.4	8.6
	60세이상	218	36.2	42.2	17.4	3.7	0.5	95.9	4.1
광역 시도	서울	205	18.0	43.4	27.8	8.8	2.0	89.3	10.7
	부산/울산/경남	159	25.8	38.4	27.0	8.2	0.6	91.2	8.8
	대구/경북	105	22.9	42.9	26.7	6.7	1.0	92.4	7.6
	경기/인천	292	23.3	38.0	28.4	9.6	0.7	89.7	10.3
	광주/전라	105	21.0	41.9	32.4	3.8	1.0	95.2	4.8
	대전/충청	103	22.3	34.0	31.1	10.7	1.9	87.4	12.6
지역 크기	광역시	31	19.4	29.0	38.7	9.7	3.2	87.1	12.9
	중소도시	464	20.0	40.9	28.9	8.6	1.5	89.9	10.1
	군/읍/면	436	23.9	36.5	29.6	8.9	1.1	89.9	10.1
최종 학력	중졸이하	100	24.0	45.0	26.0	5.0	0.0	95.0	5.0
	고졸	104	45.2	34.6	14.4	4.8	1.0	94.2	5.8
	대졸	302	27.2	40.4	26.8	4.6	1.0	94.4	5.6
	대졸이상	79	13.9	31.6	30.4	17.7	6.3	75.9	24.1
직업	무응답	503	15.3	41.9	33.4	8.7	0.6	90.7	9.3
	화이트칼라	12	33.3	0.0	8.3	58.3	0.0	41.7	58.3
	블루칼라	293	13.7	38.6	36.9	10.6	0.3	89.1	10.9
	자영업	113	26.5	32.7	32.7	5.3	2.7	92.0	8.0
	농/림/수산업	112	25.9	32.1	29.5	10.7	1.8	87.5	12.5
	전업주부	36	27.8	50.0	19.4	2.8	0.0	97.2	2.8
	학생	257	23.7	48.2	24.1	3.5	0.4	96.1	3.9
	무직/기타	84	13.1	34.5	28.6	17.9	6.0	76.2	23.8

3.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 일반국민의 10명 중 8명 이상(82.3%)은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따른 피해나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8.1%)',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3.8%)' 등의 순
-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피해를 인지한 응답자는 광주/전라(84.8%), 중종이하(94.2%),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음.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단위 : 명, %)	방송매체	신문이나 잡지	학교 등에서의 교육	민간단체 예방교육 홍보활동	개인적인 경험	주변 사람	인터넷	영화
전체	82.3	3.8	1.7	0.3	0.4	2.3	8.1	1.1
성								
남성	78.1	4.7	2.0	0.4	0.8	3.0	9.7	1.2
여성	86.4	3.0	1.4	0.2	0.0	1.6	6.5	1.0
연령								
19-29세	64.6	2.2	4.4	0.6	1.1	3.3	19.3	4.4
30대	82.6	4.7	2.6	0.0	0.0	1.1	8.4	0.5
40대	79.9	3.3	1.9	0.9	0.5	1.4	11.2	0.9
50대	91.9	3.6	0.0	0.0	0.0	3.0	1.5	0.0
60세이상	90.4	5.0	0.0	0.0	0.5	2.8	1.4	0.0
최종학력								
중졸이하	94.2	2.9	0.0	0.0	0.0	1.0	1.0	1.0
고졸	84.8	4.3	2.0	0.3	0.7	2.0	5.6	0.3
대재	67.1	2.5	5.1	0.0	1.3	3.8	19.0	1.3
대졸이상	81.1	4.0	1.4	0.4	0.2	2.2	9.3	1.4
무응답	66.7	0.0	0.0	0.0	0.0	16.7	8.3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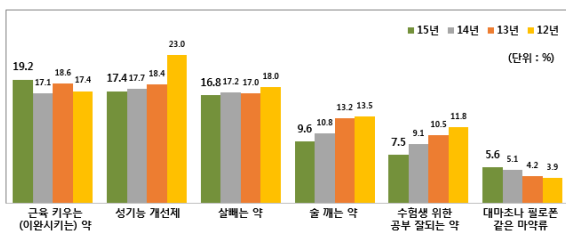
2.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1.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 실생활에서 마약류 및 약물 사용경험을 살펴보면, '근육 키우는(이완시키는) 약'(19.2%)에 대한 사용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성기능 개선제(17.4%)', '살 빼는 약'(16.8%), '술 깨는 약'(9.6%),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되는 약'(7.5%), '대마초나 필로폰 같은 마약류'(5.6%) 순.
-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 경험률은 '14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근육을 키우는(이완시키는) 약'은 전년 대비 2.1% 상승함.

㉠ 근육을 키우는(이완시키는) 약	'14년(17.1%) 대비	2.1%p▲
㉡ 성기능 개선제	'14년(17.7%) 대비	0.3%p▼
㉢ 살 빼는 약	'14년(17.2%) 대비	0.4%p▼
㉣ 술 깨는 약	'14년(10.8%) 대비	1.2%p▼
㉤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되는 약	'14년(9.1%) 대비	1.6%p▼
㉥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14년(5.1%) 대비	0.5%p▲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 ❖ ‘살 빼는 약’ 사용경험은 여성(20.9%), 19-29세(20.4%), 서울(19.0%), 대재(22.8%), 해외체류경험 있음(22.6%)에서 높았음
- ❖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의 사용경험은 여성(8.1%), 40대(11.2%), 경기/인천(9.2%), 대재(10.1%)에서 높았음.
- ❖ ‘근육을 키우는(이완시키는) 약’의 사용경험은 여성(20.8%), 19-29세(26.5%), 서울(22.9%), 대재(26.6%) 높았음.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단위 : 명, %)	사례수	살 빼는 약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근육을 키우는 약이나 이완시키는 약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1,000	16.8	83.2	7.5	92.5	19.2	80.8	
성별	남성	494	12.6	87.4	6.9	93.1	17.6	82.4
	여성	506	20.9	79.1	8.1	91.9	20.8	79.2
연령	19-29세	181	20.4	79.6	8.8	91.2	26.5	73.5
	30대	190	16.8	83.2	5.8	94.2	21.6	78.4
	40대	214	20.1	79.9	11.2	88.8	18.7	81.3
	50대	197	17.3	82.7	6.1	93.9	20.8	79.2
	60세이상	218	10.1	89.9	5.5	94.5	10.1	89.9
광역시도	서울	205	19.0	81.0	7.8	92.2	22.9	77.1
	부산/울산/경남	159	17.6	82.4	8.8	91.2	16.4	83.6
	대구/경북	105	18.1	81.9	4.8	95.2	13.3	86.7
	경기/인천	292	16.8	83.2	9.2	90.8	20.2	79.8
	광주/전라	105	13.3	86.7	5.7	94.3	18.1	81.9
	대전/충청	103	14.6	85.4	5.8	94.2	20.4	79.6
	강원	31	12.9	87.1	3.2	96.8	19.4	80.6
지역 크기	광역시	464	17.5	82.5	8.2	91.8	22.0	78.0
	중소도시	436	15.8	84.2	7.6	92.4	17.7	82.3
	군/읍/면	100	18.0	82.0	4.0	96.0	13.0	87.0
최종 학력	중졸이하	104	9.6	90.4	0.0	100.0	3.8	96.2
	고졸	302	14.9	85.1	8.9	91.1	22.8	77.2
	대재	79	22.8	77.2	10.1	89.9	26.6	73.4
	대졸이상	503	18.9	81.1	8.0	92.0	18.9	81.1
	무응답	12	0.0	100.0	0.0	100.0	25.0	75.0
해외체류 경험	있음	115	22.6	77.4	7.0	93.0	20.9	79.1
	없음	885	16.0	84.0	7.6	92.4	19.0	81.0

- ❖ ‘성기능 개선제’의 사용경험은 남성(24.5%), 50대(22.8%), 경기/인천(18.8%), 고졸(22.2%)에서 높았음.
- ❖ ‘술 깨는 약’은 남성(11.1%), 50대(12.7%), 대구/경북(11.4%), 고졸(13.9%)에서 높았음.
- ❖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남성(7.5%), 50대(8.1%), 광역시(6.0%), 고졸(7.9%)에서 높았음.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단위 : 명, %)	사례수	성기능 개선제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1,100	17.4	82.6	9.6	90.4	5.6	94.4	
성별	남성	494	24.5	75.5	11.1	88.9	7.5	92.5
	여성	506	10.5	89.5	8.1	91.9	3.8	96.2
연령	19-29세	181	8.8	91.2	10.5	89.5	6.1	93.9
	30대	190	14.2	85.8	7.9	92.1	4.2	95.8
	40대	214	19.2	80.8	10.3	89.7	5.1	94.9
	50대	197	22.8	77.2	12.7	87.3	8.1	91.9
	60세이상	218	20.6	79.4	6.9	93.1	4.6	95.4
광역시도	서울	205	18.5	81.5	9.3	90.7	6.3	93.7
	부산/울산/경남	159	16.4	83.6	8.8	91.2	6.9	93.1
	대구/경북	105	11.4	88.6	11.4	88.6	5.7	94.3
	경기/인천	292	18.8	81.2	9.9	90.1	3.8	96.2
	광주/전라	105	18.1	81.9	9.5	90.5	5.7	94.3
	대전/충청	103	18.4	81.6	9.7	90.3	6.8	93.2
	강원	31	16.1	83.9	6.5	93.5	6.5	93.5
지역 크기	광역시	464	18.3	81.7	11.2	88.8	6.0	94.0
	중소도시	436	17.0	83.0	8.3	91.7	5.5	94.5
	군/읍/면	100	15.0	85.0	8.0	92.0	4.0	96.0
최종 학력	중졸이하	104	11.5	88.5	1.9	98.1	1.0	99.0
	고졸	302	22.2	77.8	13.9	86.1	7.9	92.1
	대재	79	8.9	91.1	7.6	92.4	6.3	93.7
	대졸이상	503	16.9	83.1	8.9	91.1	5.2	94.8
	무응답	12	25.0	75.0	8.3	91.7	0.0	100.0
해외체류 경험	있음	115	16.5	83.5	9.6	90.4	9.6	90.4
	없음	885	17.5	82.5	9.6	90.4	5.1	94.9

2.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 조기유학생들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조기 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의 의무화'(31.1%)를 1순위로 꼽음.
- 다음으로, '학교에서 약물예방 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27.2%), '마약류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출입국 통제'(26.9%), '유학생이 많은 곳에 마약류 대책반을 파견하여 지원'(7.1%) 순으로 나타남.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 높을수록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및 '학교에서 정규 교과과정 채택'을 통한 사전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함.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도에 따른 조기유학생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대처방안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학교에서 정규교과 과정 채택	마약류 문제자 출입국 통제	유학생/학부모 자원에 맡김	마약류 대책반 파견하여 지원
심각 (n=904)	31.9	28.1	26.3	6.1	6.7
심각하지않음 (n=96)	24.0	18.8	32.3	14.6	10.4

※ 기타 0.8% 제외

- ❖ 조기유학생들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기 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의 의무화'라는 응답은 여성(33.0%), 50대(38.6%), 대구/경북(36.2%), 해외체류경험 없음(31.1%)에서 높게 나타남.
- ❖ 반면, '학교에서 약물예방 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32.0%), 50대(3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단위 : 명, %)	조기 유학생-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의 의무화	학교에서 약물 예방 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	마약류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출입국 통제	조기 유학생 및 학부모의 자원에 맡김	유학생이 많은 곳에 마약류 대책반을 파견하여 지원	법 처벌 강화할 것	
전 체	31.1	27.2	26.9	6.9	7.1	0.8	
성별	남성	29.1	22.3	31.4	9.1	6.7	1.4
	여성	33.0	32.0	22.5	4.7	7.5	0.2
연령	19-29세	17.1	18.8	38.7	11.0	13.8	0.6
	30대	28.4	24.7	32.1	6.3	7.4	1.1
	40대	34.1	29.0	23.4	6.5	6.1	0.9
	50대	38.6	32.5	21.8	5.6	1.5	0.0
	60세이상	35.3	29.8	20.6	5.5	7.3	1.4
광역 시도	서울	31.2	22.9	29.3	8.3	7.3	1.0
	부산/울산/경남	32.1	26.4	27.0	5.7	8.8	0.0
	대구/경북	36.2	28.6	29.5	1.9	2.9	1.0
	경기/인천	30.1	27.7	24.7	7.2	9.2	1.0
	광주/전라	33.3	31.4	26.7	7.6	0.0	1.0
	대전/충청	27.2	28.2	27.2	6.8	9.7	1.0
지역 크기	강원	22.6	32.3	22.6	16.1	6.5	0.0
	광역시	31.0	24.8	29.1	6.5	8.2	0.4
	중소도시	32.6	28.0	25.0	7.1	6.0	1.4
	군/읍/면	25.0	35.0	25.0	8.0	7.0	0.0
최종 학력	중졸이하	27.9	29.8	27.9	3.8	9.6	1.0
	고졸	36.8	28.8	21.5	5.3	6.3	1.3
	대재	17.7	16.5	34.2	13.9	17.7	0.0
	대졸이상	30.0	27.6	28.8	7.4	5.6	0.6
가구 소득	무응답	50.0	16.7	25.0	8.3	0.0	0.0
	299만원이하	31.0	27.2	24.8	7.7	7.1	2.2
	300-499만원	35.4	25.9	28.0	4.8	6.0	0.0
	500만원이상	30.4	31.3	25.3	7.4	5.5	0.0
해외 체류 경험	무응답	21.0	23.4	32.3	9.7	12.9	0.8
	있음	29.6	23.5	31.3	7.8	6.1	1.7
없음	31.3	27.7	26.3	6.8	7.2	0.7	

3.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들이 성공적으로 재활치료 후, 같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 '이웃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제시한 일반국민이 41.0%로 나타남.
- 반면 45.0%는 중독 회복자와의 공동생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임.
 - ▲ 소극적 태도 =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어울리지 않겠다' 25.8% + '관심을 갖지 않겠다' 19.2%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 높을수록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돕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인식이 낮을수록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에 따른 마약류 중독 회복자와의 동반거주 의향]

(단위 : %)

동반거주의향	마약류 심각성	서로 돕겠다	문제없지만 어울리지 않겠다	타지역으로 이전 요구	관심을 갖지 않겠다
심각 (n=904)		42.7	35.8	4.0	17.3
심각하지 않음 (n=96)		25.0	35.4	2.1	37.5

※ 무응답 0.2% 제외

- ❖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게 '이웃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적극적 태도는 여성(41.3%), 60세이상(55.0%), 광주/전라(48.6%), 고졸(47.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어울리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30대(42.6%), 서울(40.5%),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이웃과 관심을 갖고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움 것	문제는 아니지만 경각심을 갖고 어울리지 않을 것	이웃과 혐의하여 타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	관심을 갖지 않겠다
전 체	41.0	35.8	3.8	19.2
성별	남성 40.7	33.2	4.0	22.1
	여성 41.3	38.3	3.6	16.4
연령	19-29세 28.2	36.5	2.2	33.1
	30대 31.1	42.6	2.6	23.2
	40대 39.7	39.7	5.1	15.4
	50대 48.2	33.5	5.1	12.7
	60세이상 55.0	27.5	3.7	13.8
광역시도	서울 38.0	40.5	2.9	18.0
	부산/울산/경남 42.1	34.6	5.0	17.6
	대구/경북 41.9	37.1	3.8	17.1
	경기/인천 36.3	38.7	4.1	20.9
	광주/전라 48.6	31.4	2.9	17.1
	대전/충청 48.5	27.2	2.9	21.4
	강원 45.2	22.6	6.5	25.8
지역 크기	광역시 37.7	38.8	3.7	19.4
	중소도시 42.4	35.1	3.2	19.3
	군/읍/면 50.0	25.0	7.0	18.0
최종 학력	중졸이하 55.8	21.2	2.9	19.2
	고졸 47.0	33.1	5.6	14.2
	대재 21.5	35.4	3.8	39.2
	대졸이상 37.6	40.6	2.8	18.9
	무응답 33.3	33.3	8.3	25.0
가구 소득	299만원이하 48.6	27.9	3.4	19.5
	300-499만원 37.8	42.0	4.5	15.8
	500만원이상 35.9	41.5	3.2	19.4
	무응답 38.7	29.8	4.0	27.4
해외체류 경험	있음 41.7	39.1	0.9	17.4
	없음 40.9	35.4	4.2	19.4

※ 무응답 0.2%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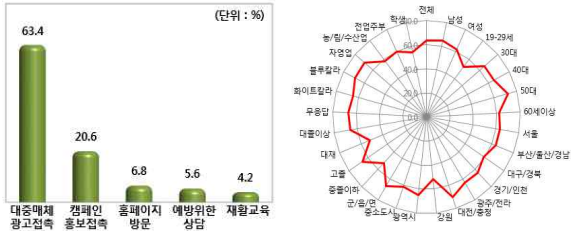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활동 접촉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활동 중 마약류나 남용약을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 접촉도가 63.4%로 가장 높았음.
※ 대중매체 광고를 통한 활동 접촉도는 '13년(62.7%)과 유사한 수준
- 다음으로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20.6%),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6.8%),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5.6%), '중독재활센터 및 재활교육'(4.2)순으로 접촉도가 높게 나타남.
- 가장 노출이 큰 '대중매체 광고' 접촉자는 남성(63.4%), 50대(72.1%), 자영업(69.6%)에서 높았음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대중매체 광고를 통한 접촉자 특성]



[대중매체 광고 접촉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		중독자 재활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및 재활교육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20.6	79.4	63.4	36.6	5.6	94.4	6.8	93.2	4.2	95.8
성	남성 23.3	76.7	65.0	35.0	5.9	94.1	6.7	93.3	4.7	95.3
	여성 18.0	82.0	61.9	38.1	5.3	94.7	6.9	93.1	3.8	96.2
연령	19-29세 19.9	80.1	51.9	48.1	3.9	96.1	8.8	91.2	2.8	97.2
	30대 18.9	81.1	64.7	35.3	5.8	94.2	5.8	94.2	4.7	95.3
	40대 21.0	79.0	65.0	35.0	5.6	94.4	7.0	93.0	4.7	95.3
	50대 24.9	75.1	72.1	27.9	8.1	91.9	9.1	90.9	6.6	93.4
	60세 이상 18.3	81.7	62.4	37.6	4.6	95.4	3.7	96.3	2.3	97.7

2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 일반국민의 과반수이상(53.7%)은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 사업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음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사업'(25.0%),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16.1%),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4.2%) 순으로 사업방향을 제시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 방향]



-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도가 높을수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 방향으로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이란 의견을 나타내고, 인식도가 낮을수록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이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 방향]

사업 방향	(단위 : %)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
마약류 심각성				
심각 (n=904)	54.4	16.0	4.4	24.1
심각하지 않음 (n=96)	46.9	16.7	2.1	33.3

※ 기타/무응답 제외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향후 '마약류 예방을 위해 홍보나 교육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55.1%), 50대(66.0%), 부산/울산/경남(60.4%)에서 높게 나타남.
- ▶ 반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17.4%), 19-29세(19.9%), 광주/전라(24.8%), 중소도시(16.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 방향]

(단위 : 명, %)	사례수	마약류 예방 위한 홍보나 교육 사업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	마약사범 처벌 강화 및 관련 법 강화	
전 체	1,000	53.7	16.1	4.2	25.0	0.1	
성별	남성	494	52.2	17.4	4.0	24.9	0.0
	여성	506	55.1	14.8	4.3	25.1	0.2
연령	19-29세	181	40.3	19.9	6.1	33.1	0.0
	30대	190	45.8	17.4	5.3	31.1	0.5
	40대	214	59.3	17.3	4.2	17.3	0.0
	50대	197	66.0	12.2	1.5	19.8	0.0
	60세이상	218	55.0	14.2	4.1	25.2	0.0
광역 시도	서울	205	54.1	18.0	4.4	22.4	0.0
	부산/울산/경남	159	60.4	10.7	3.8	23.3	0.6
	대구/경북	105	50.5	13.3	1.9	32.4	0.0
	경기/인천	292	55.1	15.8	4.5	24.0	0.0
	광주/전라	105	45.7	24.8	5.7	23.8	0.0
	대전/충청	103	48.5	14.6	2.9	33.0	0.0
	강원	31	58.1	19.4	9.7	12.9	0.0
지역 크기	광역시	464	51.9	15.9	3.9	27.2	0.2
	중소도시	436	55.3	16.5	4.6	22.7	0.0
	군/읍/면	100	55.0	15.0	4.0	25.0	0.0
최종 학력	중졸이하	104	51.9	10.6	6.7	29.8	0.0
	고졸	302	55.3	15.9	3.3	23.5	0.3
	대재	79	46.8	16.5	5.1	31.6	0.0
	대졸이상	503	53.9	17.7	4.2	23.9	0.0
	무응답	12	66.7	0.0	0.0	25.0	0.0
가구 소득	299만원이하	323	52.6	15.2	4.3	26.0	0.3
	300-499만원이하	336	56.5	16.7	3.0	23.5	0.0
	500만원이상	217	56.2	18.0	5.1	20.3	0.0
무응답	124	44.4	13.7	5.6	34.7	0.0	

* 무응답 0.7% 제외

4.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1.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이 32.7%로 가장 높게 조사됨.
- 다음으로 '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29.8%),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26.5%),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10.7%) 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해 '서로 돕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가진 집단은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을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 방안으로 제시한 반면, 소극적 태도를 가진 집단은 '마약사업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함.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방안]

방지 방안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마약사범 처벌 강화	대중매체 홍보 프로그램 방영	사회 복귀 지원 강화
서로 돕겠다	40.5	21.5	27.3	10.2
어울리지 않겠다	30.2	31.8	27.4	10.6
타지역 이전 요구	28.9	31.6	23.7	15.8
관심을 갖지 않겠다	21.9	43.8	22.9	10.9

* 기타/무응답 제외

-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 방안으로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을 주장한 의견은 광주/전남/전북(40.3%), 여성(39.2%), 60세이상(50.6%), 중졸이하(45.7%), 전업주부(46.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면 '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하는 의견은 대구/경북(32.8%), 남성(32.9%), 19-29세(47.8%), 대재(40.9%), 학생(45.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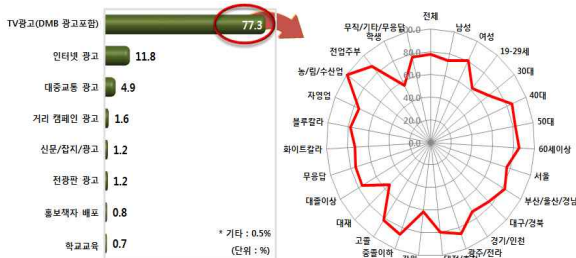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TV등 대중 매체를 통한 마약범죄 홍보 프로그램 방영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
전 체	1,000	32.7	29.8	26.5	10.7
성별					
남성	494	30.4	33.4	24.7	11.1
여성	506	35.0	26.3	28.3	10.3
연령					
19-29세	181	17.7	46.4	20.4	15.5
30대	190	29.5	36.3	22.1	11.6
40대	214	35.5	23.8	30.4	10.3
50대	197	39.1	23.9	28.4	8.6
60세이상	218	39.4	21.6	29.8	8.3
광역시도					
서울	205	33.7	21.0	32.2	13.2
부산/울산/경남	159	33.3	27.0	31.4	7.5
대구/경북	105	30.5	30.5	28.6	10.5
경기/인천	292	33.6	35.3	21.2	9.6
광주/전라	105	37.1	22.9	24.8	15.2
대전/충청	103	28.2	37.9	24.3	9.7
강원	31	22.6	45.2	19.4	9.7
지역 크기					
광역시	464	32.3	27.4	28.7	11.6
중소도시	436	33.5	31.0	25.2	10.1
읍/읍/면	100	31.0	36.0	22.0	9.0
최종 학력					
중졸이하	104	39.4	26.0	27.9	5.8
고졸	302	36.4	29.5	25.5	8.3
대재	79	10.1	51.9	17.7	20.3
대졸이상	503	32.8	27.2	27.8	11.9
무응답	12	25.0	33.3	41.7	0.0
가구 소득					
299만원이하	323	36.2	26.3	25.7	11.1
300-499만원	336	30.4	30.7	29.2	9.8
500만원이상	217	35.0	28.1	26.3	10.6
무응답	124	25.8	39.5	21.8	12.1

* 무응답 0.3% 제외

2. 마약류 남용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안

- 일반국민 10명 중 약 8명(77.3%)은 마약류 남용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안으로 'TV광고(DMB 광고 포함)'를 1순위로 제시함.
- 다음으로 '인터넷 광고'(11.8%), '대중교통수단 광고'(4.9%), '거리 캠페인 광고'(1.6%), '신문/잡지/광고' 및 '전광판 광고'(각각 1.2%) 순으로 나타남.
- 'TV광고'를 제시한 응답은 여성(80.6%), 60세이상(84.9%), 광주/전라(85.7%), 중졸이하(86.5%), 농림/수산업(100.0%)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마약류 남용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약류 남용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안]

(단위 : 명, %)	사례수	TV광고 (DMB 광고 포함)	인터넷 광고	대중 교통 광고	거리 캠페인 광고	신문/ 잡지/ 광고	전광판 광고	홍보 책자 배포	학교 교육	라디오 광고
전 체	1,000	77.3	11.8	4.9	1.6	1.2	1.2	0.8	0.7	0.3
성										
남성	494	73.9	13.0	6.7	1.4	1.2	1.2	1.4	0.6	0.2
여성	506	80.6	10.7	3.2	1.8	1.2	1.2	0.2	0.8	0.4
연령										
19-29세	181	61.9	21.5	9.4	2.2	0.6	2.8	1.1	0.0	0.0
30대	190	69.5	14.7	7.9	3.7	1.6	1.1	0.5	0.5	0.5
40대	214	85.0	5.6	3.3	1.9	0.9	0.9	0.5	0.9	0.5
50대	197	82.2	12.2	2.0	0.5	0.5	1.0	0.5	1.0	0.0
60세 이상	218	84.9	6.9	2.8	0.0	2.3	0.5	1.4	0.9	0.5

3. 마약류 및 약물남용 사례 목격시 신고의향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사례 목격 시, 신고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80.3%(매우 크다 46.6% + 다소 있음 33.7%)로 나타남
- 전기조사 대비(14년, 78.2%) 2.1%p 상승한 수준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신고의향 없다'는 7.5%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도가 높을수록, 마약류 및 약물남용 '신고의향'(81.5%)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울 것' 및 '타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신고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남.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및 중독 회복자 동반거주의향에 따른 신고의향]

(단위 : %)

구분	신고의향			
	신고의향 있다	보통	신고의향 없다	
마약류 심각성	81.5	12.2	6.3	
개인적 인식	68.8	12.5	18.8	
중독 회복자	관심 갖고 도울 것	85.9	9.5	4.6
	어울리지 않을 것	78.8	14.5	6.7
동반거주 의향	타지역으로 옮길 것 요구	84.2	10.5	5.3
	관심을 갖지 않을 것	70.3	14.1	15.6

* 기타/무응답 제외

-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사례 목격 시, '신고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0세이상(85.3%), 대구/경북(82.9%), 고졸(86.1%), 농/림/수산업(86.1%), 가구소득 299만원이하(86.1%) 응답자에서 높았음.
- ❖ 반면 '신고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19-29세(9.9%), 대전/충청(11.7%), 대재(13.9%), 학생(13.1%), 가구소득 300-499만원이하(9.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마약류 및 약물남용 사례 목격시 신고의향]

(단위 : 명, %)	사례수	매우 큼	다소 있음	보통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종합결과		
							신고의향 있음	보통	신고의향 없음
전체	1,000	46.6	33.7	12.2	5.0	2.5	80.3	12.2	7.5
성별									
남성	494	49.6	32.2	10.1	5.1	3.0	81.8	10.1	8.1
여성	506	43.7	35.2	14.2	4.9	2.0	78.9	14.2	6.9
연령									
19-29세	181	39.8	36.5	13.8	5.0	5.0	76.2	13.8	9.9
30대	190	39.5	37.9	15.3	4.7	2.6	77.4	15.3	7.4
40대	214	47.2	33.2	14.0	4.2	1.4	80.4	14.0	5.6
50대	197	52.3	28.9	10.7	6.1	2.0	81.2	10.7	8.1
60세이상	218	52.8	32.6	7.8	5.0	1.8	85.3	7.8	6.9
광역 시도									
서울	205	39.0	40.0	14.1	6.3	0.5	79.0	14.1	6.8
부산/울산/경남	159	49.7	32.7	11.3	5.0	1.3	82.4	11.3	6.3
대구/경북	105	54.3	28.6	13.3	1.0	2.9	82.9	13.3	3.8
경기/인천	292	47.6	32.9	11.3	4.5	3.8	80.5	11.3	8.2
광주/전라	105	50.5	27.6	13.3	5.7	2.9	78.1	13.3	8.6
대전/충청	103	41.7	37.9	8.7	7.8	3.9	79.6	8.7	11.7
강원	31	48.4	29.0	16.1	3.2	3.2	77.4	16.1	6.5
최종 학력									
중졸이하	104	60.6	21.2	9.6	5.8	2.9	81.7	9.6	8.7
고졸	302	47.7	38.4	8.3	4.0	1.7	86.1	8.3	5.6
대재	79	34.2	40.5	11.4	8.9	5.1	74.7	11.4	13.9
대졸이상	503	45.1	32.0	15.5	4.8	2.6	77.1	15.5	7.4
무응답	12	41.7	50.0	0.0	8.3	0.0	91.7	0.0	8.3
직업									
화이트칼라	293	44.4	35.8	12.3	5.5	2.0	80.2	12.3	7.5
블루칼라	113	55.8	28.3	10.6	3.5	1.8	84.1	10.6	5.3
자영업	112	51.8	28.6	12.5	3.6	3.6	80.4	12.5	7.1
농/림/수산업	36	63.9	22.2	5.6	0.0	8.3	86.1	5.6	8.3
전업주부	257	41.6	36.6	14.4	5.8	1.6	78.2	14.4	7.4
학생	84	36.9	39.3	10.7	8.3	4.8	76.2	10.7	13.1
무직/기타	105	51.4	31.4	11.4	3.8	1.9	82.9	11.4	5.7
가구 소득									
299만원이하	323	52.0	34.1	8.0	3.4	2.5	86.1	8.0	5.9
300-499만원	336	43.5	31.0	16.1	7.4	2.1	74.4	16.1	9.5
500만원이상	217	42.9	37.3	13.4	3.7	2.8	80.2	13.4	6.5
무응답	124	47.6	33.9	10.5	4.8	3.2	81.5	10.5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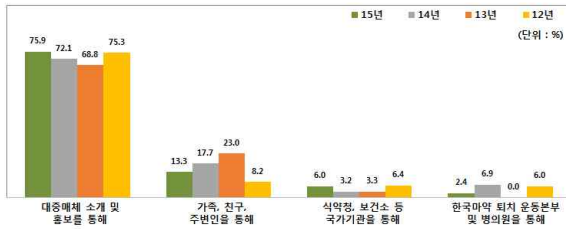
5) 중독재활센터 인지도

- 마약류 중독자를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중독자 재활시설인 '중독재활센터' 인지도는 8.3%
- '14년 조사 대비(6.9%) '중독재활센터' 인지율은 1.4%p 상승하였음.
※ '14년(6.9%) 대비 '15년(8.3%)로 1.4%p▲ 상승

[중독재활센터 인지 여부]



[중독재활센터 인지경로]



- '중독재활센터' 인지자(N=83)의 75.9%는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소개, 홍보'를 통해 '중독재활센터'를 인지한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가족, 친구, 주변인을 통해서(13.3%)', '식약처, 보건소 등 국가기관을 통해서(6.0%)',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서(2.4%) 순

- ❖ 마약류 중독자 재활시설인 '중독재활센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남성(10.9%), 50대(12.7%), 강원(12.9%), 고졸(10.3%), 블루칼라(11.5%) 직업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 반면, '중독재활센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음' 응답자는 여성(94.3%), 19-29세(96.1%), 대전/충청(94.2%), 중졸이하(97.1%), 학생(96.4%)에서 높은 수준을 보임.

[중독재활센터 인지경로]

(단위 : 명, %)	중독재활센터 인지도			중독재활센터 인지경로				
	사례수	인지	비인지	사례수	대중매체 소개 및 홍보	가족, 친구, 주변인	국가 기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명예위원
전체	1,000	8.3	91.7	83	75.9	13.3	6.0	2.4
성별								
남성	494	10.9	89.1	54	68.5	14.8	9.3	3.7
여성	506	5.7	94.3	29	89.7	10.3	0.0	0.0
연령								
19-29세	181	3.9	96.1	7	71.4	14.3	0.0	0.0
30대	190	6.3	93.7	12	83.3	8.3	0.0	0.0
40대	214	10.3	89.7	22	81.8	9.1	9.1	0.0
50대	197	12.7	87.3	25	64.0	24.0	12.0	0.0
60세 이상	218	7.8	92.2	17	82.4	5.9	0.0	11.8
광역 시도								
서울	205	7.8	92.2	16	81.3	12.5	6.3	0.0
부산/울산/경남	159	6.9	93.1	11	63.6	27.3	0.0	9.1
대구/경북	105	6.7	93.3	7	42.9	14.3	14.3	0.0
경기/인천	292	9.9	90.1	29	82.8	13.8	3.4	0.0
광주/전라	105	9.5	90.5	10	90.0	0.0	10.0	0.0
대전/충청	103	5.8	94.2	6	66.7	16.7	16.7	0.0
강원	31	12.9	87.1	4	75.0	0.0	0.0	25.0
최종 학력								
중졸이하	104	2.9	97.1	3	66.7	33.3	0.0	0.0
고졸	302	10.3	89.7	31	71.0	22.6	3.2	3.2
대졸	79	3.8	96.2	3	66.7	0.0	0.0	0.0
대졸이상	503	9.1	90.9	46	80.4	6.5	8.7	2.2
무응답	12	0.0	100.0	-	-	-	-	-
직업								
화이트칼라	293	8.5	91.5	25	80.0	8.0	8.0	0.0
블루칼라	113	11.5	88.5	13	69.2	15.4	7.7	7.7
자영업	112	7.1	92.9	8	62.5	25.0	12.5	0.0
농/림/수산업	36	11.1	88.9	4	75.0	25.0	0.0	0.0
전업주부	257	6.6	93.4	17	88.2	11.8	0.0	0.0
학생	84	3.6	96.4	3	66.7	0.0	0.0	0.0
무직/기타	105	12.4	87.6	13	69.2	15.4	7.7	7.7

6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 관련

1.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 일반국민의 약 10명 중 9명(89.3%)은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활동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힘.
- '14년(91.7%) 대비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필요성은 1.4%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 '13년(90.5%) 대비 '14년(91.7%) : 1.2%p▲
 - ※ '14년(91.7%) 대비 '15년(89.3%) : 1.4%p▼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의 국민이 '정부의 민간단체 활동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과 개인적 심각성 인식에 따른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구분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		(단위 : %)				
	필요성 (A+B)	매우 필요 (A)	필요하다 (B)	별로 필요치 않다(C)	전혀 필요치 않다(D)		
위험성	90.5	41.8	48.7	8.3	1.2		
사회적 인식	85.5	41.4	44.2	10.0	4.4		
심각성	90.8	43.8	47.0	7.4	1.8		
개인적 인식	75.0	21.9	53.1	20.8	4.2		

- ❖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해 정부의 민간단체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성(92.5%), 60세이상(94.0%), 강원(93.5%), 중졸이하(94.2%), 전업주부(96.5%), 가구소득 299만원이하(91.3%)에서 높은 수준을 보임.
- ❖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남성(14.0%), 19-29세(18.8%), 대전/충청(11.7%), 대재(17.7%), 학생(19.0%), 가구소득 500만원이상(12.4%)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단위 : 명, %)	사례수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종합결과		
						필요	불필요	
전 체	1,000	41.7	47.6	8.7	2.0	89.3	10.7	
성별	남성	494	39.7	46.4	10.7	3.2	86.0	14.0
	여성	506	43.7	48.8	6.7	0.8	92.5	7.5
연령	19-29세	181	25.4	55.8	13.3	5.5	81.2	18.8
	30대	190	36.8	53.2	8.4	1.6	90.0	10.0
	40대	214	46.7	41.1	10.7	1.4	87.9	12.1
	50대	197	46.2	46.2	7.1	0.5	92.4	7.6
	60세이상	218	50.5	43.6	4.6	1.4	94.0	6.0
광역 시도	서울	205	42.0	49.3	6.3	2.4	91.2	8.8
	부산/울산/경남	159	32.1	56.6	10.1	1.3	88.7	11.3
	대구/경북	105	38.1	50.5	7.6	3.8	88.6	11.4
	경기/인천	292	42.5	45.9	10.6	1.0	88.4	11.6
	광주/전라	105	49.5	40.0	8.6	1.9	89.5	10.5
	대전/충청	103	45.6	42.7	7.8	3.9	88.3	11.7
	강원	31	54.8	38.7	6.5	0.0	93.5	6.5
최종 학력	중졸이하	104	47.1	47.1	3.8	1.9	94.2	5.8
	고졸	302	47.4	44.0	7.6	1.0	91.4	8.6
	대재	79	19.0	63.3	12.7	5.1	82.3	17.7
	대졸이상	503	41.0	47.3	9.7	2.0	88.3	11.7
	무응답	12	33.3	50.0	8.3	8.3	83.3	16.7
직업	화이트칼라	293	39.9	47.4	10.9	1.7	87.4	12.6
	블루칼라	113	48.7	36.3	13.3	1.8	85.0	15.0
	자영업	112	39.3	49.1	8.9	2.7	88.4	11.6
	농/림/수산업	36	50.0	36.1	8.3	5.6	86.1	13.9
	전업주부	257	45.1	51.4	3.5	0.0	96.5	3.5
	학생	84	19.0	61.9	13.1	6.0	81.0	19.0
	무직/기타	105	48.6	41.9	6.7	2.9	90.5	9.5
가구 소득	299만원이하	323	46.4	44.9	6.5	2.2	91.3	8.7
	300-499만원	336	42.9	47.9	8.0	1.2	90.8	9.2
	500만원이상	217	38.7	48.8	10.6	1.8	87.6	12.4
	무응답	124	31.5	51.6	12.9	4.0	83.1	16.9

2.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

-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단체 활동에 참여할 '의향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4.5%로 조사됨(적극참여 7.5% + 다소 있는 편 37.0%)로 조사됨.
- 반면 '참여의향 없다'는 응답은 55.5%(전혀 없다 15.2% + 별로 없다 40.3%)
- '14년(42.1%) 대비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은 2.4%p 상승함.
 ※ '13년(41.7%) 대비 '14년(42.1%) : 0.4%p▲
 ※ '14년(42.1%) 대비 '15년(44.5%) : 2.4%p▲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집단의 민간단체 활동 참여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과 개인적 심각성 인식에 따른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		(단위 : %)				
구분	위험성	참여의향 (A+B)	적극 참여 (A)	다소 있다 (B)	별로 없다 (C)	전혀 없다 (D)
위험성	위험함	45.5	8.0	37.5	39.8	14.6
사회적 인식	위험없음	41.4	6.0	35.3	41.8	16.9
심각성	심각함	46.2	7.5	38.7	40.2	13.6
개인적 인식	심각없음	28.1	7.3	20.8	41.7	30.2

-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활동 참여의향은 남성(44.9%), 50대(51.3%), 광주/전라(49.5%), 고졸(52.3%), 블루칼라(50.4%),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50.8%), 해외체류경험이 없는 응답자(44.7%)에서 높았음.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

(단위 : 명, %)	사례수	적극 참여	다소 있는 편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종합결과		
						참여 의향 있음	참여 의향 없음	
전체	1,000	7.5	37.0	40.3	15.2	44.5	55.5	
성별	남성	494	8.9	36.0	36.4	18.6	44.9	55.1
	여성	506	6.1	37.9	44.1	11.9	44.1	55.9
연령	19-29세	181	4.4	27.6	46.4	21.5	32.0	68.0
	30대	190	5.8	33.7	40.0	20.5	39.5	60.5
	40대	214	6.1	43.5	38.3	12.1	49.5	50.5
	50대	197	9.6	41.6	39.6	9.1	51.3	48.7
	60세이상	218	11.0	37.2	38.1	13.8	48.2	51.8
광역시도	서울	205	3.9	39.0	42.0	15.1	42.9	57.1
	부산/울산/경남	159	5.7	38.4	41.5	14.5	44.0	56.0
	대구/경북	105	13.3	31.4	41.0	14.3	44.8	55.2
	경기/인천	292	8.2	35.3	40.1	16.4	43.5	56.5
	광주/전라	105	9.5	40.0	36.2	14.3	49.5	50.5
	대전/충청	103	8.7	39.8	35.9	15.5	48.5	51.5
	강원	31	3.2	32.3	51.6	12.9	35.5	64.5
최종학력	중졸이하	104	14.4	32.7	35.6	17.3	47.1	52.9
	고졸	302	9.3	43.0	38.1	9.6	52.3	47.7
	대재	79	3.8	27.8	46.8	21.5	31.6	68.4
	대졸이상	503	5.8	36.0	41.9	16.3	41.7	58.3
	무응답	12	0.0	25.0	25.0	50.0	25.0	75.0
직업	퀵이트랄라	293	7.8	36.9	37.2	18.1	44.7	55.3
	블루칼라	113	14.2	36.3	39.8	9.7	50.4	49.6
	자영업	112	4.5	42.0	30.4	23.2	46.4	53.6
	농/림/수산업	36	5.6	38.9	41.7	13.9	44.4	55.6
	전업주부	257	5.4	38.1	47.1	9.3	43.6	56.4
	학생	84	3.6	26.2	48.8	21.4	29.8	70.2
	무직/기타	105	11.4	38.1	36.2	14.3	49.5	50.5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323	10.2	40.6	34.4	14.9	50.8	49.2
	300-499만원	336	7.7	39.6	40.2	12.5	47.3	52.7
	500만원이상	217	6.5	32.3	46.1	15.2	38.7	61.3
	무응답	124	1.6	29.0	46.0	23.4	30.6	69.4
해외체류 경험	있음	115	10.4	32.2	40.9	16.5	42.6	57.4
	없음	885	7.1	37.6	40.2	15.0	44.7	55.3

3. 자원봉사 참여의향

-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의향자(N=445) 중 81.6%(적극 참여하고 싶다 13.7% + 다소 있는 편이다 67.9%)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반면, 18.4%(별로 없다 17.1% + 전혀 없다 1.3%)는 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14년(79.5%) 대비 자원봉사자로 참여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2.1%p 증가함.
 - ※ '13년(79.1%) 대비 '14년(79.5%) : 0.4%p▲
 - ※ '14년(79.5%) 대비 '15년(81.6%) : 2.1%p▲

[자원봉사 참여의향]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겠다는 참여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음.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과 개인적 심각성 인식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의향]

자원봉사 참여의향		(단위 : %)				
구분	참여의향 (A+B)	적극 참여 (A)	다소 있다 (B)	별로 없다 (C)	전혀 없다 (D)	
위험성	위험함	81.9	13.5	68.4	17.0	1.2
사회적 인식	위험않음	80.6	14.6	66.0	17.5	1.9
심각성	심각함	81.6	13.6	67.9	17.2	1.2
개인적 인식	심각않음	81.5	14.8	66.7	14.8	3.7

- ❖ '자원봉사자 참여 의향자'는 남성(82.4%), 50대(86.1%), 강원(90.9%), 대졸이상(84.3%), 농/림/수산업(93.8%), 가구소득 300-499만원이하(83.0%),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응답자(89.8%)에서 높았음.
- ❖ 반면, 자원봉사자 참여의향이 '없음' 응답자는 여성(19.3%), 60세이상(22.9%), 서울(25.0%), 대재(28.0%), 학생(28.0%), 가구소득 299만원이하(20.1%), 해외체류경험이 없는 응답자(19.4%)에서 높은 수준을 보임.

[자원봉사 참여의향(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자 기준)]

(단위 : 명, %)	사례수	적극 참여	다소 있는 편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종합결과		
						참여 의향 있음	참여 의향 없음	
전 체	445	13.7	67.9	17.1	1.3	81.6	18.4	
성별	남성	222	16.7	65.8	16.7	0.9	82.4	17.6
	여성	223	10.8	70.0	17.5	1.8	80.7	19.3
연령	19-29세	58	8.6	72.4	19.0	0.0	81.0	19.0
	30대	75	10.7	66.7	21.3	1.3	77.3	22.7
	40대	106	10.4	74.5	15.1	0.0	84.9	15.1
	50대	101	13.9	72.3	11.9	2.0	86.1	13.9
	60세이상	105	21.9	55.2	20.0	2.9	77.1	22.9
광역 시도	서울	88	6.8	68.2	23.9	1.1	75.0	25.0
	부산/울산/경남	70	10.0	74.3	15.7	0.0	84.3	15.7
	대구/경북	47	17.0	66.0	12.8	4.3	83.0	17.0
	경기/인천	127	16.5	63.0	18.9	1.6	79.5	20.5
	광주/전라	52	15.4	67.3	17.3	0.0	82.7	17.3
	대전/충청	50	18.0	72.0	10.0	0.0	90.0	10.0
	강원	11	18.2	72.7	0.0	9.1	90.9	9.1
최종 학력	중졸이하	49	20.4	57.1	18.4	4.1	77.6	22.4
	고졸	158	13.9	67.1	18.4	0.6	81.0	19.0
	대재	25	8.0	64.0	28.0	0.0	72.0	28.0
	대졸이상	210	12.9	71.4	14.3	1.4	84.3	15.7
	무응답	3	0.0	66.7	33.3	0.0	66.7	33.3
직업	화이트칼라	131	12.2	74.0	13.0	0.8	86.3	13.7
	블루칼라	57	24.6	61.4	12.3	1.8	86.0	14.0
	저명업	52	7.7	75.0	17.3	0.0	82.7	17.3
	농/림/수산업	16	12.5	81.3	6.3	0.0	93.8	6.3
	전업주부	112	8.9	67.9	19.6	3.6	76.8	23.2
가구 소득	학생	25	8.0	64.0	28.0	0.0	72.0	28.0
	무직/기타	52	25.0	50.0	25.0	0.0	75.0	25.0
	299만원이하	164	17.1	62.8	17.1	3.0	79.9	20.1
	300-499만원	159	13.2	69.8	17.0	0.0	83.0	17.0
	500만원이상	84	11.9	70.2	16.7	1.2	82.1	17.9
해외체류 경험	있음	49	22.4	67.3	10.2	0.0	89.8	10.2
	없음	396	12.6	67.9	17.9	1.5	80.6	19.4

4. 민간단체 기부의회향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의향자(N=445) 중 63.6%(적극 기부하고 싶다 7.0% + 다소 있는 편이다 56.6%)는 민간단체에 기부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반면, 36.4%(별로 없다 32.8% + 전혀 없다 3.6%)는 기부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4년(63.1%) 대비 민간단체 기부의회향이 있는 응답자는 0.5%p 상승함
 ※ '13년(64.6%) 대비 '14년(63.1%) : 1.5%p ▼
 ※ '14년(63.1%) 대비 '15년(63.6%) : 0.5%p ▲

[민간단체 기부의회향]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기부의회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심각성을 인식하는 집단은 '민간단체 기부의회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과 개인적 심각성 인식에 따른 민간단체 기부의회향]

구분	자율봉사 참여의향		(단위 : %)				
	위험성	위험함	기부의회향 (A+B)	적극 기부 (A)	다소 있다 (B)	별로 없다 (C)	전혀 없다 (D)
위험성	위험함		64.0	7.0	57.0	32.7	3.2
사회적 인식	위험않음		62.1	6.8	55.3	33.0	4.9
심각성	심각함		62.9	6.7	56.2	34.0	3.1
개인적 인식	심각않음		74.1	11.1	63.0	14.8	11.1

- ❖ '민간단체 기부의회향자'는 남성(65.8%), 40대(68.9%), 강원(81.8%), 대졸이상(68.6%), 농/림/수산업(68.8%), 가구소득 300-499만원이하(70.4%),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응답자(83.7%)에서 높았음.
- ❖ 기부의회향이 없는 응답자는 여성(38.6%), 19-29세(44.8%), 서울(42.0%), 대재(52.0%), 학생(52.0%), 가구소득 299만원이하(42.1%), 해외체류경험이 없는 응답자(38.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민간단체 기부의회향(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자 기준)]

	(단위 : 명, %)	사례수	적극 기부 하고 싶다	다소 있는 편이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종합결과	
							기부 의향 있음	기부 의향 없음
전 체		445	7.0	56.6	32.8	3.6	63.6	36.4
성별	남성	222	6.8	59.0	31.1	3.2	65.8	34.2
	여성	223	7.2	54.3	34.5	4.0	61.4	38.6
연령	19-29세	58	5.2	50.0	43.1	1.7	55.2	44.8
	30대	75	5.3	52.0	41.3	1.3	57.3	42.7
	40대	106	4.7	64.2	28.3	2.8	68.9	31.1
	50대	101	9.9	57.4	27.7	5.0	67.3	32.7
	60세이상	105	8.6	55.2	30.5	5.7	63.8	36.2
	광역시도	서울	88	0.0	58.0	39.8	2.3	58.0
	부산/울산/경남	70	5.7	58.6	32.9	2.9	64.3	35.7
	대구/경북	47	8.5	61.7	27.7	2.1	70.2	29.8
	경기/인천	127	11.0	48.8	34.6	5.5	59.8	40.2
	광주/전라	52	7.7	61.5	28.8	1.9	69.2	30.8
	대전/충청	50	8.0	58.0	30.0	4.0	66.0	34.0
	강원	11	9.1	72.7	9.1	9.1	81.8	18.2
최종 학력	중졸이하	49	6.1	46.9	38.8	8.2	53.1	46.9
	고졸	158	8.9	54.4	34.2	2.5	63.3	36.7
	대재	25	4.0	44.0	48.0	4.0	48.0	52.0
	대졸이상	210	6.2	62.4	28.1	3.3	68.6	31.4
	무응답	3	0.0	33.3	66.7	0.0	33.3	66.7
직업	화이트칼라	131	6.1	59.5	31.3	3.1	65.6	34.4
	블루칼라	57	10.5	56.1	31.6	1.8	66.7	33.3
	자영업	52	5.8	61.5	28.8	3.8	67.3	32.7
	농/림/수산업	16	6.3	62.5	25.0	6.3	68.8	31.3
	전업주부	112	5.4	57.1	32.1	5.4	62.5	37.5
	학생	25	4.0	44.0	48.0	4.0	48.0	52.0
	무직/기타	52	11.5	48.1	38.5	1.9	59.6	40.4
가구 소득	299만원이하	164	8.5	49.4	36.6	5.5	57.9	42.1
	300-499만원	159	5.0	65.4	27.7	1.9	70.4	29.6
	500만원이상	84	9.5	58.3	28.6	3.6	67.9	32.1
	무응답	38	2.6	47.4	47.4	2.6	50.0	50.0
해외체류 경험	있음	49	8.2	75.5	14.3	2.0	83.7	16.3
	없음	396	6.8	54.3	35.1	3.8	61.1	38.9

별첨1. 기초 통계표

<표 1> 미약 국민 인식도 지수

응답 내용	사례수	지수	사회적 인식	개인적 인식	신뢰의향
[전체]	(1000)	71.59	59.73	68.20	79.22
① 성별					
남성	(494)	72.00	60.98	69.30	80.06
여성	(506)	71.20	58.50	69.47	78.41
② 연령					
19세 이하	(181)	66.44	54.01	61.19	75.28
20~30대	(190)	67.93	56.58	61.71	76.71
31~40대	(214)	71.32	59.66	69.34	80.14
41~50대	(197)	74.06	64.21	70.43	80.64
51세 이상	(218)	77.09	66.17	77.52	82.34
③ 정치 성향					
보수	(205)	70.61	60.37	66.71	77.68
중도	(159)	73.03	59.75	70.13	81.13
진보	(105)	73.33	58.10	70.00	82.62
기타	(292)	71.66	60.19	68.41	79.02
무응답	(105)	73.27	65.00	69.52	79.29
미응답	(103)	68.59	57.04	66.02	75.46
응답	(31)	67.14	47.58	62.90	79.03
④ 직업					
직업	(464)	71.26	61.64	67.35	78.02
비직업	(436)	71.39	58.49	68.23	79.42
미응답	(100)	74.06	56.25	72.00	84.00
⑤ 소득					
소득	(104)	76.98	62.98	79.57	82.69
비소득	(302)	74.40	62.33	72.02	81.62
미응답	(75)	63.84	53.16	57.28	72.47
미응답	(503)	70.05	58.40	65.66	78.08
응답	(12)	69.79	64.58	52.08	81.25
⑥ 교육					
교육	(293)	69.82	58.11	63.65	78.75
비교육	(113)	72.35	54.20	68.81	83.19
미응답	(112)	72.71	62.72	67.41	80.36
미응답	(36)	74.48	55.56	75.69	83.33
미응답	(257)	72.62	62.16	72.86	77.72
미응답	(84)	64.43	52.38	57.74	73.81
미응답	(105)	76.79	68.33	75.48	81.67
⑦ 거주					
거주	(323)	74.25	59.83	72.29	82.43
비거주	(336)	69.81	59.75	66.37	76.56
미응답	(217)	71.14	60.02	67.63	78.46
미응답	(124)	70.31	58.87	63.51	79.44
⑧ 기타					
기타	(115)	71.74	61.52	64.57	80.43
기타	(885)	71.57	59.49	68.67	79.07

[응답자 특성표]

[전	내	容	수	사	X	
					(1000)	%
①성	여	성	17.7	31.9	25.5	21.4
②연	19	세	181	9.9	29.3	22.1
③지	시	도	205	15.1	33.7	30.2
④지	시	도	464	18.5	32.3	28.9
⑤학	대	학	104	31.7	22.1	15.4
⑥직	이	직	203	12.3	36.9	24.6
⑦소	299	명	323	19.8	31.0	22.0
⑧연	20	대	115	20.9	31.3	21.7
⑨성	남	성	115	20.9	31.3	21.7

<표1> 미역류 및 악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응	답	내	容	사	사회적 인식					종합 결과		계
					총	대	보	불	전	인	보	
[전	내	容	수	인	체	로	통	로	혀	지	통	인
(1000)				지	인	인	인	인	인	인	인	
				향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있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는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부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족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①성	여	성	17.7	31.9	25.5	21.4	3.5	49.6	25.5	24.9	100.0	
②연	19	세	181	9.9	29.3	22.1	5.5	39.2	33.1	27.6	100.0	
③지	시	도	205	15.1	33.7	30.2	1.5	48.8	30.2	21.0	100.0	
④지	시	도	464	18.5	32.3	28.9	1.7	50.9	28.9	20.3	100.0	
⑤학	대	학	104	31.7	22.1	15.4	2.9	53.8	15.4	30.8	100.0	
⑥직	이	직	203	12.3	36.9	24.6	2.7	49.1	24.6	26.3	100.0	
⑦소	299	명	323	19.8	31.0	22.0	4.0	50.8	22.0	27.2	100.0	
⑧연	20	대	115	20.9	31.3	21.7	3.8	49.3	26.0	24.7	100.0	
⑨성	남	성	115	20.9	31.3	21.7	3.8	49.3	26.0	24.7	100.0	

<표> 미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응답내용	사례수	개인적 인식					종합 결과			계
		매우 심각함	다소 심각함	보통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하지 않음	계	
[전체]	(1000)	22.1	39.4	28.9	8.4	1.2	61.5	28.9	9.6	100.0
①연령										
연령	(494)	22.5	35.8	30.0	10.3	1.4	59.3	30.0	11.7	100.0
19-29	(506)	21.7	42.9	27.9	6.5	1.0	64.6	27.9	7.5	100.0
30-39	(181)	14.4	35.9	33.1	13.3	3.3	50.3	33.1	16.6	100.0
40-49	(190)	11.6	37.9	38.4	10.0	2.1	49.5	38.4	12.1	100.0
50-59	(214)	21.0	39.3	31.8	7.9	.0	60.3	31.8	7.9	100.0
60세 이상	(197)	24.9	41.1	25.4	8.1	.5	66.0	25.4	8.6	100.0
②지역										
수도권	(205)	18.0	43.4	27.8	8.8	2.0	61.5	27.8	10.7	100.0
신도시/광역시/광역시	(159)	25.8	38.4	27.0	8.2	.6	64.2	27.0	8.8	100.0
기타/광역시/광역시	(105)	23.3	38.0	28.4	9.6	.7	61.3	28.4	10.3	100.0
인도네시아/광역시/광역시	(292)	23.3	38.0	28.4	9.6	.7	61.3	28.4	10.3	100.0
연수/광역시/광역시	(105)	21.0	41.9	32.4	3.8	1.0	62.9	32.4	4.8	100.0
인도네시아/광역시/광역시	(103)	22.3	34.0	31.1	10.7	1.9	56.3	31.1	12.6	100.0
기타/광역시/광역시	(31)	19.4	29.0	38.7	9.7	3.2	48.4	38.7	12.9	100.0
③직업										
직업	(464)	20.0	40.9	28.9	8.6	1.5	61.0	28.9	10.1	100.0
사무직/직업	(436)	23.9	38.5	29.8	8.9	1.1	60.3	28.6	10.1	100.0
비사무직/직업	(100)	24.0	45.0	26.0	5.0	.0	69.0	26.0	5.0	100.0
④학력										
학력	(104)	45.2	34.6	14.4	4.8	1.0	79.8	14.4	5.8	100.0
초·중·고졸/학력	(302)	27.2	40.4	26.8	4.6	1.0	67.5	26.8	5.6	100.0
대졸/학력	(79)	13.9	31.6	30.4	17.7	6.3	45.6	30.4	24.1	100.0
대학원/학력	(503)	15.3	41.9	33.4	8.7	.5	57.3	33.4	9.3	100.0
기타/학력	(12)	33.3	.0	8.3	58.3	.0	33.3	8.3	58.3	100.0
⑤주거형태										
주거형태	(293)	13.7	38.6	36.9	10.6	.3	52.2	36.9	10.9	100.0
단독주택/주거형태	(113)	26.5	32.7	32.7	5.3	2.7	59.3	32.7	8.0	100.0
공동주택/주거형태	(112)	25.9	32.1	29.5	10.7	1.8	58.0	29.5	12.5	100.0
기타/주거형태	(36)	27.8	50.0	19.4	2.8	.0	77.8	19.4	2.8	100.0
무주택/기타	(257)	23.7	48.2	24.1	3.5	.4	72.0	24.1	3.9	100.0
무주택/기타	(84)	13.1	34.5	28.6	17.9	6.0	47.6	28.6	23.8	100.0
무주택/기타	(105)	38.1	35.2	17.1	9.5	.0	73.3	17.1	9.5	100.0
⑥소득										
소득	(323)	29.4	39.0	23.8	6.8	.9	68.4	23.8	7.7	100.0
300-499만원/소득	(336)	16.7	44.0	29.5	6.7	2.1	60.7	29.5	9.8	100.0
500만원 이상/소득	(217)	22.6	33.6	35.9	7.4	.5	56.2	35.9	7.8	100.0
무주택/소득	(124)	16.9	37.9	28.2	16.1	.8	54.8	28.2	16.9	100.0
⑦해외여행										
해외여행	(115)	16.5	39.1	33.9	7.0	3.5	55.7	33.9	10.4	100.0
해외여행	(885)	22.8	39.4	28.2	8.6	.9	62.3	28.2	9.5	100.0

<표> 미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응답내용	사례수	약물남용 피해 인지경로							계	
		방송매체를 통해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학교에서의 교육	민간단체의 캠페인	개인적인 경험	주변사람들	인터넷을 통해		영화
[전체]	(1000)	82.3	3.8	1.7	.3	.4	2.3	8.1	1.1	100.0
①연령										
연령	(494)	78.1	4.7	2.0	.4	.8	3.0	9.7	1.2	100.0
19-29	(506)	86.4	3.0	1.4	.2	.0	1.6	6.5	1.0	100.0
30-39	(181)	64.6	2.2	4.4	.6	1.1	3.3	19.3	4.4	100.0
40-49	(190)	82.6	4.7	2.6	.0	.0	1.1	8.4	.5	100.0
50-59	(214)	79.9	3.3	1.9	.9	.5	1.4	11.2	.9	100.0
60세 이상	(197)	91.9	3.6	.0	.0	.0	3.0	1.5	.0	100.0
60세 이상	(216)	90.4	5.0	.0	.0	.5	2.8	1.4	.0	100.0
②지역										
수도권	(205)	80.0	3.9	2.4	.5	.5	2.9	9.8	.0	100.0
신도시/광역시/광역시	(159)	82.4	6.3	2.6	.4	.3	3.1	5.7	.6	100.0
기타/광역시/광역시	(105)	85.5	2.9	.0	.0	.0	1.0	6.7	.0	100.0
인도네시아/광역시/광역시	(292)	80.5	3.8	1.4	.3	.0	2.1	9.6	2.4	100.0
연수/광역시/광역시	(105)	84.8	1.0	4.8	.0	1.0	2.9	5.7	.0	100.0
인도네시아/광역시/광역시	(103)	83.5	4.9	1.6	.0	.0	.0	8.6	2.9	100.0
기타/광역시/광역시	(31)	77.4	.0	.0	.0	3.2	6.5	12.9	.0	100.0
③직업										
직업	(464)	81.3	4.3	1.5	.4	.2	2.8	8.6	.9	100.0
사무직/직업	(436)	83.7	3.7	2.0	.0	.5	1.4	7.3	1.4	100.0
비사무직/직업	(100)	81.0	2.0	2.0	.0	1.0	4.0	9.0	1.0	100.0
④학력										
학력	(104)	94.2	2.9	.0	.0	.0	1.0	1.0	1.0	100.0
초·중·고졸/학력	(302)	84.8	4.3	2.0	.3	.7	2.0	5.6	.3	100.0
대졸/학력	(79)	67.1	2.5	5.1	.0	1.3	3.8	19.0	1.3	100.0
대학원/학력	(503)	81.1	4.0	1.4	.4	.2	2.2	9.3	1.4	100.0
기타/학력	(12)	66.7	.0	.0	.0	.0	16.7	8.3	8.3	100.0
⑤주거형태										
주거형태	(293)	78.8	4.1	1.0	.3	.3	1.4	13.3	.7	100.0
단독주택/주거형태	(113)	72.6	6.2	5.3	.9	1.8	2.7	7.1	3.5	100.0
공동주택/주거형태	(112)	75.5	7.1	1.8	.0	.0	4.5	7.1	.0	100.0
기타/주거형태	(36)	97.2	.0	.0	.0	.0	2.8	.0	.0	100.0
무주택/기타	(257)	93.0	1.9	.4	.0	.0	1.2	3.1	.4	100.0
무주택/기타	(84)	66.7	2.4	6.0	.0	1.2	3.6	17.9	2.4	100.0
무주택/기타	(105)	86.7	3.8	.0	1.0	.0	3.8	2.9	1.9	100.0
⑥소득										
소득	(323)	85.1	4.0	1.2	.3	.3	2.2	6.5	.3	100.0
300-499만원/소득	(336)	83.6	3.6	1.5	.3	.3	1.5	9.3	.3	100.0
500만원 이상/소득	(217)	80.6	5.1	2.3	.5	.5	2.3	7.8	.9	100.0
무주택/소득	(124)	74.2	1.6	2.4	.0	.8	4.8	12.1	4.0	100.0
⑦해외여행										
해외여행	(115)	80.9	2.6	1.7	.9	.9	1.7	10.4	.9	100.0
해외여행	(885)	82.5	4.0	1.7	.2	.3	2.4	7.8	1.1	100.0

<표4-3>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사용
- 단회복기구는 또는 이전시키지 않는 약

응답내용	사례수	근육이완제		계
		있다	없다	
[전체]	(1000)	19.2	80.8	100.0
① 의료인				
의사	(494)	17.6	82.4	100.0
간호사	(506)	20.8	79.2	100.0
② 의료인 외				
19 대	(181)	26.5	73.5	100.0
30 대	(190)	21.6	78.4	100.0
40 대	(214)	18.7	81.3	100.0
50 대	(197)	20.8	79.2	100.0
60 대	(218)	10.1	89.9	100.0
③ 의료인 외 / 의사	(205)	22.9	77.1	100.0
부산 / 울산 / 경남	(159)	16.4	83.6	100.0
대구 / 경북	(105)	13.3	86.7	100.0
충청 / 대전	(232)	20.2	79.8	100.0
전남 / 광주	(105)	18.1	81.9	100.0
전북 / 전북	(103)	20.4	79.6	100.0
제주 / 제주	(31)	19.4	80.6	100.0
④ 의료인 외 / 간호사	(484)	22.0	78.0	100.0
부산 / 울산 / 경남	(436)	17.7	82.3	100.0
대구 / 경북	(100)	13.0	87.0	100.0
⑤ 의료인 외 / 기타	(104)	3.8	96.2	100.0
부산 / 울산 / 경남	(302)	22.8	77.2	100.0
대구 / 경북	(79)	26.6	73.4	100.0
충청 / 대전	(503)	18.9	81.1	100.0
전남 / 광주	(12)	25.0	75.0	100.0
⑥ 의료인 외 / 기타	(293)	21.5	78.5	100.0
부산 / 울산 / 경남	(113)	21.2	78.8	100.0
대구 / 경북	(112)	17.9	82.1	100.0
충청 / 대전	(36)	5.6	94.4	100.0
전남 / 광주	(257)	17.5	82.5	100.0
전북 / 전북	(84)	27.4	72.6	100.0
제주 / 제주	(105)	14.3	85.7	100.0
⑦ 의료인 외 / 기타	(323)	18.3	81.7	100.0
부산 / 울산 / 경남	(336)	23.8	76.2	100.0
대구 / 경북	(217)	15.2	84.8	100.0
충청 / 대전	(124)	16.1	83.9	100.0
⑧ 의료인 외 / 기타	(115)	20.9	79.1	100.0
부산 / 울산 / 경남	(885)	19.0	81.0	100.0

<표4-4>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사용
- 발기부전치료제 등 성기능 개선제

응답내용	사례수	성기능 개선제		계
		있다	없다	
[전체]	(1000)	17.4	82.6	100.0
① 의료인				
의사	(494)	24.5	75.5	100.0
간호사	(506)	10.5	89.5	100.0
② 의료인 외				
19 대	(181)	8.8	91.2	100.0
30 대	(190)	14.2	85.8	100.0
40 대	(214)	19.2	80.8	100.0
50 대	(197)	22.8	77.2	100.0
60 대	(218)	20.6	79.4	100.0
③ 의료인 외 / 의사	(205)	18.5	81.5	100.0
부산 / 울산 / 경남	(159)	16.4	83.6	100.0
대구 / 경북	(105)	11.4	88.6	100.0
충청 / 대전	(232)	18.8	81.2	100.0
전남 / 광주	(105)	18.1	81.9	100.0
전북 / 전북	(103)	18.4	81.6	100.0
제주 / 제주	(31)	16.1	83.9	100.0
④ 의료인 외 / 간호사	(484)	18.3	81.7	100.0
부산 / 울산 / 경남	(436)	17.0	83.0	100.0
대구 / 경북	(100)	15.0	85.0	100.0
⑤ 의료인 외 / 기타	(104)	11.5	88.5	100.0
부산 / 울산 / 경남	(302)	22.2	77.8	100.0
대구 / 경북	(79)	8.9	91.1	100.0
충청 / 대전	(503)	16.9	83.1	100.0
전남 / 광주	(12)	25.0	75.0	100.0
⑥ 의료인 외 / 기타	(293)	18.8	81.2	100.0
부산 / 울산 / 경남	(113)	21.2	78.8	100.0
대구 / 경북	(112)	28.6	71.4	100.0
충청 / 대전	(36)	16.7	83.3	100.0
전남 / 광주	(257)	10.5	89.5	100.0
전북 / 전북	(84)	9.5	90.5	100.0
제주 / 제주	(105)	21.0	79.0	100.0
⑦ 의료인 외 / 기타	(323)	18.3	81.7	100.0
부산 / 울산 / 경남	(336)	22.0	78.0	100.0
대구 / 경북	(217)	16.1	83.9	100.0
충청 / 대전	(124)	4.8	95.2	100.0
⑧ 의료인 외 / 기타	(115)	16.5	83.5	100.0
부산 / 울산 / 경남	(885)	17.5	82.5	100.0

<표4-3>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사용
- 설문조사에서 유통업체에서 유통되는 순계는 약

응답 내용	사례수	순계는 약		계
		있다	없다	
[전체]	(1000)	9.6	90.4	100.0
① 연약성				
성상	(494)	11.1	88.9	100.0
성상	(506)	8.1	91.9	100.0
② 연약성				
대체	(181)	10.5	89.5	100.0
대체	(190)	7.9	92.1	100.0
대체	(214)	10.3	89.7	100.0
대체	(197)	12.7	87.3	100.0
대체	(218)	6.9	93.1	100.0
③ 연약성				
시도	(205)	9.3	90.7	100.0
산 / 산	(159)	8.8	91.2	100.0
산 / 산	(105)	11.4	88.6	100.0
산 / 산	(232)	9.9	90.1	100.0
산 / 산	(105)	8.5	90.5	100.0
산 / 산	(103)	9.7	90.3	100.0
산 / 산	(31)	6.5	93.5	100.0
④ 연약성				
시도	(464)	11.2	88.8	100.0
시도	(436)	8.3	91.7	100.0
시도	(100)	8.0	92.0	100.0
⑤ 연약성				
이력	(104)	1.9	98.1	100.0
이력	(302)	13.9	86.1	100.0
이력	(79)	7.6	92.4	100.0
이력	(503)	8.9	91.1	100.0
이력	(12)	8.3	91.7	100.0
⑥ 연약성				
이력	(293)	10.2	89.8	100.0
이력	(113)	8.6	91.2	100.0
이력	(112)	14.3	85.7	100.0
이력	(361)	8.3	91.7	100.0
이력	(257)	8.6	91.4	100.0
이력	(84)	7.1	92.9	100.0
이력	(105)	8.6	91.4	100.0
⑦ 연약성				
이력	(323)	7.7	92.3	100.0
이력	(336)	12.5	87.5	100.0
이력	(217)	10.1	89.9	100.0
이력	(124)	5.6	94.4	100.0
⑧ 연약성				
이력	(115)	9.6	90.4	100.0
이력	(885)	9.6	90.4	100.0

<표4-3>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사용
- 대리조사기관과 같은 미악류

응답 내용	사례수	미악류		계
		있다	없다	
[전체]	(1000)	5.6	94.4	100.0
① 연약성				
성상	(494)	7.5	92.5	100.0
성상	(506)	3.8	96.2	100.0
② 연약성				
대체	(181)	6.1	93.9	100.0
대체	(190)	4.2	95.8	100.0
대체	(214)	5.1	94.9	100.0
대체	(197)	8.1	91.9	100.0
대체	(218)	4.6	95.4	100.0
③ 연약성				
시도	(205)	6.3	93.7	100.0
산 / 산	(159)	6.9	93.1	100.0
산 / 산	(105)	5.7	94.3	100.0
산 / 산	(232)	3.8	96.2	100.0
산 / 산	(105)	5.7	94.3	100.0
산 / 산	(103)	6.8	93.2	100.0
산 / 산	(31)	6.5	93.5	100.0
④ 연약성				
시도	(464)	6.0	94.0	100.0
시도	(436)	5.5	94.5	100.0
시도	(100)	4.0	96.0	100.0
⑤ 연약성				
이력	(104)	1.0	99.0	100.0
이력	(302)	7.9	92.1	100.0
이력	(79)	6.3	93.7	100.0
이력	(503)	5.2	94.8	100.0
이력	(12)	.0	100.0	100.0
⑥ 연약성				
이력	(293)	7.8	92.2	100.0
이력	(113)	3.5	96.5	100.0
이력	(112)	8.0	92.0	100.0
이력	(361)	2.8	97.2	100.0
이력	(257)	3.9	96.1	100.0
이력	(84)	6.0	94.0	100.0
이력	(105)	3.8	96.2	100.0
⑦ 연약성				
이력	(323)	3.7	96.3	100.0
이력	(336)	6.3	93.8	100.0
이력	(217)	8.8	91.2	100.0
이력	(124)	3.2	96.8	100.0
⑧ 연약성				
이력	(115)	9.6	90.4	100.0
이력	(885)	5.1	94.9	100.0

<표5>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응답 내용	사례수	조기유학생 마약류 대처방안						계
		조기유학생 교육기관 학부모 마약류 예방 교육의 의무화	학교에서 약물예방 교육을 제공 해줄 것으로 판단 됨	마약류 문제 해결 을 위해 관련 기관 과 협력 해줄 것 으로 판단 됨	조기유학생 유학생 부모 가 대처 할 것 으로 판단 됨	유학생이 많은 지역 에서 대처 방안 을 강제 하 여 주 기 를 원 하 고 있 다	법 치 를 강 화 하 고 자 주 적 인 대 처 방 안 을 추 진 하 고 있 다	
[전	1000	31.1	27.2	26.9	6.9	7.1	.8	100.0
① 여	성별	(494) 29.1	22.3	31.4	9.1	6.7	1.4	100.0
② 연	연령	(506) 33.0	32.0	22.5	4.7	7.5	.2	100.0
③ 19	세	(181) 17.1	18.8	38.7	11.0	13.8	.6	100.0
30		(190) 26.4	24.7	32.1	6.3	7.4	1.1	100.0
40		(214) 34.1	29.0	23.4	6.5	6.1	.9	100.0
50		(197) 38.6	32.5	21.8	5.6	1.5	.0	100.0
60		(218) 35.3	29.8	20.6	5.5	7.3	1.4	100.0
④ 19	성	(205) 31.2	22.9	29.3	8.3	7.3	1.0	100.0
30		(159) 32.1	26.4	27.0	5.7	8.8	.0	100.0
40		(105) 35.2	28.6	25.5	1.9	2.9	1.0	100.0
50		(292) 30.1	27.7	29.7	7.2	6.2	.0	100.0
60		(105) 33.3	31.4	26.7	7.6	.0	1.0	100.0
⑤ 19	성	(103) 27.2	28.2	27.2	6.8	9.7	1.0	100.0
30		(31) 22.6	32.3	22.6	16.1	8.5	.0	100.0
40		(464) 31.0	24.8	29.1	6.5	8.2	.4	100.0
50		(436) 32.6	28.0	25.0	7.1	6.0	1.4	100.0
60		(100) 25.0	35.0	25.0	8.0	7.0	.0	100.0
⑥ 19	성	(104) 27.9	28.8	27.9	3.8	9.6	1.0	100.0
30		(302) 36.8	28.8	21.5	5.3	6.3	1.3	100.0
40		(79) 17.7	16.5	34.2	13.9	17.7	.0	100.0
50		(503) 30.0	27.6	28.8	7.4	5.6	.8	100.0
60		(12) 50.0	16.7	25.0	8.3	.0	.0	100.0
⑦ 19	성	(293) 31.1	23.2	29.7	7.8	7.2	1.0	100.0
30		(113) 23.0	27.4	31.0	10.6	8.0	.0	100.0
40		(112) 33.0	25.9	33.0	4.5	2.7	.9	100.0
50		(36) 30.6	30.6	30.6	8.3	.0	.0	100.0
60		(257) 35.5	35.8	17.9	2.7	5.1	.0	100.0
⑧ 19	성	(84) 17.9	18.7	33.3	13.1	13.0	.0	100.0
30		(105) 30.5	25.7	23.8	7.6	8.6	3.8	100.0
40		(323) 31.0	27.2	24.8	7.7	7.1	2.2	100.0
50		(336) 35.4	25.9	28.0	4.8	6.0	.0	100.0
60		(217) 31.3	25.3	24.3	7.4	5.5	.0	100.0
⑨ 19	성	(124) 21.0	23.4	32.3	9.7	12.9	.8	100.0
30		(299) 31.0	27.2	24.8	7.7	7.1	2.2	100.0
40		(336) 35.4	25.9	28.0	4.8	6.0	.0	100.0
50		(217) 31.3	25.3	24.3	7.4	5.5	.0	100.0
60		(124) 21.0	23.4	32.3	9.7	12.9	.8	100.0
⑩ 19	성	(115) 29.6	23.5	31.3	7.8	6.1	1.7	100.0
30		(885) 31.3	27.7	26.3	6.8	7.2	.7	100.0

<표6> 마약류 중독 회복자원의 동반거주 의향

응답 내용	사례수	마약류 중독회복지원에 대한 인식					계
		이웃과 연락 생활이 가능 하도록 도움 줄 것	문제는 아니지만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	이웃과 연락 생활이 가능 하도록 도움 줄 것	관심을 갖지 않았다	무응답	
[전	1000	41.0	35.8	3.8	19.2	.2	100.0
① 여	성별	(494) 40.7	33.2	4.0	22.1	.0	100.0
② 연	연령	(506) 41.3	38.3	3.6	16.4	.4	100.0
③ 19	세	(181) 28.2	36.5	2.2	33.1	.0	100.0
30		(190) 31.1	42.8	2.8	23.2	.5	100.0
40		(214) 39.7	39.7	5.1	15.4	.0	100.0
50		(197) 48.2	33.5	5.1	12.7	.5	100.0
60		(218) 55.0	27.5	3.7	13.8	.0	100.0
④ 19	성	(205) 38.0	40.5	2.9	18.0	.5	100.0
30		(159) 42.1	34.6	5.0	17.6	.6	100.0
40		(105) 41.9	37.1	3.8	17.1	.0	100.0
50		(292) 38.3	38.7	4.1	20.9	.0	100.0
60		(105) 48.6	31.4	2.9	17.1	.0	100.0
⑤ 19	성	(103) 48.5	27.2	2.9	21.4	.0	100.0
30		(31) 45.2	22.6	6.5	25.8	.0	100.0
40		(464) 37.7	38.8	3.7	19.4	.4	100.0
50		(436) 42.4	35.1	3.2	19.3	.0	100.0
60		(100) 50.0	25.0	7.0	18.0	.0	100.0
⑥ 19	성	(104) 55.8	21.2	2.9	19.2	1.0	100.0
30		(302) 47.0	33.1	5.6	14.2	.0	100.0
40		(79) 21.5	35.4	3.9	39.2	.0	100.0
50		(503) 37.6	40.6	2.8	18.9	.2	100.0
60		(12) 33.3	33.3	8.3	25.0	.0	100.0
⑦ 19	성	(293) 37.2	40.6	3.1	18.8	.3	100.0
30		(113) 38.1	36.3	4.4	20.4	.9	100.0
40		(112) 41.1	33.9	4.5	20.5	.0	100.0
50		(36) 55.6	22.2	5.6	16.7	.0	100.0
60		(257) 47.5	36.6	3.1	12.8	.0	100.0
⑧ 19	성	(84) 23.8	34.5	3.6	38.1	.0	100.0
30		(105) 47.6	27.6	5.7	19.0	.0	100.0
40		(299) 48.6	27.9	3.4	19.5	.6	100.0
50		(336) 37.8	42.0	4.5	15.8	.0	100.0
60		(217) 35.9	41.5	3.2	19.4	.0	100.0
⑨ 19	성	(124) 38.7	29.8	4.0	27.4	.0	100.0
30		(299) 48.6	27.9	3.4	19.5	.6	100.0
40		(336) 37.8	42.0	4.5	15.8	.0	100.0
50		(217) 35.9	41.5	3.2	19.4	.0	100.0
60		(124) 38.7	29.8	4.0	27.4	.0	100.0
⑩ 19	성	(115) 41.7	39.1	.9	17.4	.9	100.0
30		(885) 40.9	35.4	4.2	19.4	.1	100.0

<표7-1> 대중매체 광고 접촉 -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응답내용	사례수	예방교육/캠페인	
		계	있었다
[전체]	(1000)	20.6	79.4
①연령			
19		(494)	23.3
20		(506)	18.0
30		(181)	19.9
40		(190)	18.9
50		(214)	21.0
60		(197)	24.9
70		(218)	18.3
②성별			
남성		(205)	19.5
여성		(159)	17.0
③교육수준			
초·중·고		(105)	22.9
대·석·박		(232)	21.6
④직업			
사무직		(105)	17.1
서비스직		(103)	25.2
무직/기타		(31)	25.8
⑤지역			
서울		(464)	21.1
경기		(436)	21.3
충청		(100)	15.0
⑥소득			
100만 이하		(104)	15.4
100만~200만		(302)	18.2
200만~300만		(79)	20.3
300만 이상		(503)	22.9
⑦주거형태			
단독주택		(12)	33.3
공동주택		(293)	22.5
⑧주택유형			
아파트		(113)	23.9
주택		(112)	22.3
⑨주거지역			
도시		(36)	13.9
시외		(257)	17.1
무주택		(84)	19.0
기타		(105)	21.9
⑩가구형태			
혼자		(323)	19.2
부부		(336)	20.5
가족		(217)	24.4
기타		(124)	17.7
⑪연령			
19		(115)	23.5
20		(885)	20.2

<표7-2> 대중매체 광고 접촉 - 대중매체 광고

응답내용	사례수	대중매체 광고	
		계	있었다
[전체]	(1000)	63.4	36.6
①연령			
19		(494)	65.0
20		(506)	61.9
30		(181)	51.9
40		(190)	64.7
50		(214)	65.0
60		(197)	72.1
70		(218)	62.4
②성별			
남성		(205)	63.4
여성		(159)	63.5
③교육수준			
초·중·고		(105)	59.0
대·석·박		(232)	63.7
④직업			
사무직		(105)	63.8
서비스직		(103)	69.9
무직/기타		(31)	51.6
⑤지역			
서울		(464)	64.9
경기		(436)	61.0
충청		(100)	67.0
⑥소득			
100만 이하		(104)	52.9
100만~200만		(302)	66.2
200만~300만		(79)	51.9
300만 이상		(503)	65.6
⑦주거형태			
단독주택		(12)	66.7
공동주택		(293)	65.2
⑧주택유형			
아파트		(113)	69.0
주택		(112)	69.6
⑨주거지역			
도시		(36)	58.3
시외		(257)	59.9
무주택		(84)	54.8
기타		(105)	62.9
⑩가구형태			
혼자		(323)	59.8
부부		(336)	66.4
가족		(217)	65.4
기타		(124)	61.3
⑪연령			
19		(115)	64.3
20		(885)	63.3

<표7-3> 대중매체 광고 접촉 - 예방을 위한 상담

응답내용	사례수	상담		계
		있었다	없었다	
[전체]	(1000)	5.6	94.4	100.0
①연령				
19				
30				
40				
50				
60				
②성별				
남성				
여성				
③지역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기타				
④교육수준				
초·중·고				
대·석·박				
기타				
⑤취업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무직				
기타				
⑥소득수준				
299만 이하				
300~499만				
500만 이상				
⑦가구형태				
혼합가구				
핵심가구				
기타				

<표7-4> 대중매체 광고 접촉 - 홈페이지 방문

응답내용	사례수	홈페이지 방문		계
		있었다	없었다	
[전체]	(1000)	6.8	93.2	100.0
①연령				
19				
30				
40				
50				
60				
②성별				
남성				
여성				
③지역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기타				
④교육수준				
초·중·고				
대·석·박				
기타				
⑤취업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무직				
기타				
⑥소득수준				
299만 이하				
300~499만				
500만 이상				
⑦가구형태				
혼합가구				
핵심가구				
기타				

<표7-5> 대중매체 광고 집중 - 중독재활센터 및 재활교육

응답내용	사례수	중독재활센터 / 재활교육		계
		있다	없다	
[전체]	(1000)	4.2	95.8	100.0
◎성인				
성년남	(494)	4.7	95.3	100.0
성년여	(506)	3.8	96.2	100.0
◎19-29세				
남	(181)	2.8	97.2	100.0
여	(190)	4.7	95.3	100.0
◎30-49세				
남	(214)	4.7	95.3	100.0
여	(197)	6.5	93.4	100.0
◎50-69세				
남	(218)	2.3	97.7	100.0
◎지역				
수도권	(205)	2.4	97.6	100.0
중부권	(159)	3.1	96.9	100.0
동남권	(105)	7.6	92.4	100.0
서남권	(232)	3.4	96.6	100.0
제주	(105)	3.9	96.2	100.0
해외	(103)	5.8	94.2	100.0
미지	(31)	12.9	87.1	100.0
◎직업				
사무직	(464)	4.7	95.3	100.0
서비스직	(436)	3.9	96.1	100.0
무직	(100)	3.0	97.0	100.0
◎학력				
초·중·고졸	(104)	1.9	98.1	100.0
대졸	(302)	6.0	94.0	100.0
석·박사	(79)	2.5	97.5	100.0
미지	(503)	4.0	96.0	100.0
미응답	(12)	.0	100.0	100.0
◎소득				
미지	(293)	4.4	95.6	100.0
100만원 이하	(113)	11.5	88.5	100.0
113-200만원	(112)	4.5	95.5	100.0
200-300만원	(36)	2.9	97.2	100.0
300-400만원	(257)	1.6	98.4	100.0
400만원 이상	(84)	2.4	97.6	100.0
미응답	(105)	3.8	96.2	100.0
◎가구				
300-499㎡	(323)	3.4	96.6	100.0
500-999㎡	(336)	5.1	94.9	100.0
1000㎡ 이상	(217)	5.1	94.9	100.0
미지	(124)	2.4	97.6	100.0
◎총계				
있음	(115)	2.6	97.4	100.0
없음	(885)	4.4	95.6	100.0

<표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응답내용	사례수	마퇴 사업방향							계
		마약류 예방교육 관련 홍보 교육 사업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	마약류 처벌강화	무응답	무응답	
[전체]	(1000)	53.7	16.1	4.2	25.0	.1	.2	.7	100.0
◎성인									
성년남	(494)	52.2	17.4	4.0	24.9	.0	.4	1.0	100.0
성년여	(506)	55.1	14.8	4.3	25.1	.2	.0	.4	100.0
◎19-29세									
남	(181)	40.3	19.9	6.1	33.1	.0	.0	.6	100.0
여	(190)	45.8	17.4	5.3	31.1	.5	.0	.0	100.0
◎30-49세									
남	(214)	50.3	17.3	4.2	17.3	.0	.9	.9	100.0
여	(197)	65.0	12.2	1.5	19.8	.0	.0	.5	100.0
◎50-69세									
남	(218)	55.0	14.2	4.1	25.2	.0	.0	1.4	100.0
◎지역									
수도권	(205)	54.1	18.0	4.4	22.4	.0	.0	1.0	100.0
중부권	(159)	60.4	10.7	3.8	23.3	.6	.6	.6	100.0
동남권	(105)	50.5	13.3	1.9	22.4	.0	1.0	1.0	100.0
서남권	(232)	65.1	15.3	4.5	24.0	.0	.0	.7	100.0
제주	(105)	45.7	24.8	5.7	23.8	.0	.0	.0	100.0
해외	(103)	48.5	14.6	2.9	33.0	.0	.0	1.0	100.0
미지	(31)	58.1	18.4	9.7	12.9	.0	.0	.0	100.0
◎직업									
사무직	(464)	51.9	15.9	3.9	27.2	.2	.2	.6	100.0
서비스직	(436)	55.3	16.5	4.6	22.7	.0	.2	.7	100.0
무직	(100)	55.0	15.0	4.0	25.0	.0	.0	1.0	100.0
◎학력									
초·중·고졸	(104)	51.9	10.6	6.7	29.8	.0	.0	1.0	100.0
대졸	(302)	55.3	15.9	3.3	23.5	.3	.3	1.3	100.0
석·박사	(79)	46.8	16.5	5.1	31.6	.0	.0	.0	100.0
미지	(503)	53.3	17.7	4.2	23.9	.0	.2	.2	100.0
미응답	(12)	65.7	.0	.0	25.0	.0	.0	8.3	100.0
◎소득									
미지	(293)	49.5	20.5	5.1	23.9	.0	.7	.3	100.0
100만원 이하	(113)	49.6	17.7	6.2	25.7	.0	.0	.9	100.0
113-200만원	(112)	68.6	8.0	.9	22.9	.9	.0	.0	100.0
200-300만원	(36)	66.7	2.8	8.3	22.2	.0	.0	.0	100.0
300-400만원	(257)	56.8	14.8	3.1	24.5	.0	.0	.8	100.0
400만원 이상	(84)	47.5	15.5	4.8	32.1	.0	.0	.0	100.0
미응답	(105)	46.7	19.0	4.8	26.7	.0	.0	2.9	100.0
◎가구									
300-499㎡	(323)	52.6	15.2	4.3	26.0	.3	.3	1.2	100.0
500-999㎡	(336)	56.5	16.7	3.0	23.5	.0	.0	.3	100.0
1000㎡ 이상	(217)	46.2	18.0	5.1	30.3	.0	.5	.0	100.0
미지	(124)	44.4	13.7	5.6	34.7	.0	.0	1.6	100.0
◎총계									
있음	(115)	57.4	19.1	2.6	20.0	.0	.9	.0	100.0
없음	(885)	53.2	15.7	4.4	25.6	.1	.1	.8	100.0

<표9>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응답 내용	사례수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 정책방안					무응답	계
		초·중·고교 교육	TV 등 대중매체	마약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마약 사용자 지원 강화	마약류 사용지 원		
[전체]	(1000)	32.7	26.5	10.7	29.8	.3	100.0	
◎ 성별								
남성	(494)	30.4	24.7	11.1	33.4	.4	100.0	
여성	(506)	35.0	28.3	10.3	26.3	.2	100.0	
◎ 연령								
19세 이하	(181)	17.7	20.4	15.5	46.4	.0	100.0	
20~29세	(190)	29.5	22.1	11.6	38.3	.5	100.0	
30~49세	(214)	35.5	30.4	10.3	23.8	.0	100.0	
50~69세	(197)	39.1	28.4	8.6	23.9	.0	100.0	
70세 이상	(218)	39.4	29.8	8.3	21.6	.9	100.0	
◎ 권역								
서울	(205)	33.7	32.2	13.2	21.0	.0	100.0	
부산	(159)	33.3	31.4	7.5	27.0	.6	100.0	
대구	(105)	30.5	28.6	10.5	30.5	.0	100.0	
대전	(292)	33.6	21.2	9.6	31.2	.4	100.0	
충청	(105)	37.1	24.6	15.2	22.9	.0	100.0	
전남	(103)	28.2	24.3	9.7	37.9	.0	100.0	
전북	(31)	22.6	19.4	9.7	45.2	3.2	100.0	
◎ 직업								
직무	(464)	32.3	28.7	11.6	27.4	.0	100.0	
직무 외	(436)	33.5	25.2	10.1	31.0	.2	100.0	
무응답	(100)	31.0	22.0	9.0	36.0	2.0	100.0	
◎ 직업								
직무	(104)	39.4	27.9	5.8	26.0	1.0	100.0	
직무 외	(302)	36.4	25.5	8.3	29.5	.3	100.0	
무응답	(75)	10.1	17.7	20.3	51.9	.0	100.0	
무응답	(503)	30.8	27.8	11.9	27.2	.2	100.0	
무응답	(12)	25.0	41.7	.0	33.3	.0	100.0	
◎ 취미								
취미	(293)	28.0	26.6	15.4	30.0	.0	100.0	
취미 외	(113)	29.2	22.1	9.7	38.9	.0	100.0	
무응답	(112)	41.1	22.3	8.0	27.7	.9	100.0	
무응답	(36)	35.1	33.3	8.3	19.4	2.8	100.0	
무응답	(257)	42.0	30.4	7.0	20.6	.0	100.0	
무응답	(84)	9.5	19.0	19.0	52.4	.0	100.0	
무응답	(105)	35.2	29.5	4.8	29.5	1.0	100.0	
◎ 소득								
소득	(323)	36.2	25.7	11.1	26.3	.6	100.0	
소득 외	(336)	30.4	29.2	9.8	30.7	.0	100.0	
무응답	(217)	35.0	26.3	10.6	28.1	.0	100.0	
무응답	(124)	25.8	21.8	12.1	38.5	.8	100.0	
◎ 연령								
연령	(115)	38.3	20.9	9.6	31.3	.0	100.0	
연령 외	(885)	32.0	27.2	10.8	29.6	.3	100.0	

<표9-1> 마약류 남용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안

응답 내용	사례수	마약류 남용 방지 홍보방안									
		TV광고 (DMB/공중파/유선/무선)	신문/잡지/광고	라디오 광고	대중교통 광고	인터넷 광고	거리 캠페인 광고	홍보책자 배포	전광판 광고	학교교육	가정교육
[전체]	(1000)	77.3	1.2	.3	4.9	11.8	1.6	.8	1.2	.7	.2
◎ 성별											
남성	(494)	73.9	1.2	.2	6.7	13.0	1.4	1.4	1.2	.6	.4
여성	(506)	80.6	1.2	.4	3.2	10.7	1.8	1.2	1.2	.8	.0
◎ 연령											
19세 이하	(181)	61.9	.6	.0	9.4	21.5	2.2	1.1	2.8	.0	.6
20~29세	(190)	69.5	1.6	.5	7.9	14.7	3.7	.5	1.1	.5	.0
30~49세	(214)	85.0	.9	.5	3.3	5.6	1.9	.5	.9	.3	.0
50~69세	(197)	82.2	.3	.0	2.0	12.2	.5	1.0	1.0	.0	.0
70세 이상	(218)	84.9	2.3	.5	2.8	6.9	.0	1.4	.5	.9	.0
◎ 권역											
서울	(205)	76.6	1.0	.0	5.9	12.2	1.5	1.0	1.5	.5	.0
부산	(159)	82.4	.6	.0	3.8	9.4	.8	2.5	.0	.6	.0
대구	(105)	76.2	1.0	.0	6.7	10.5	1.0	.0	3.8	1.0	.0
대전	(292)	73.3	.3	1.0	5.1	15.1	2.4	.3	.3	1.4	.7
충청	(105)	65.7	2.9	.0	4.8	3.8	1.0	1.0	1.0	.0	.0
전남	(103)	73.6	1.9	.0	2.9	12.6	1.0	.0	1.9	.0	.0
전북	(31)	61.3	6.5	.0	3.2	19.4	6.5	.0	3.2	.0	.0
◎ 직업											
직무	(464)	77.2	.9	.2	5.8	11.2	1.7	1.1	1.5	.4	.0
직무 외	(436)	78.4	.9	.5	5.0	13.3	1.4	.5	.9	.7	.5
무응답	(100)	82.0	4.0	.0	.0	8.0	2.0	1.0	1.0	2.0	.0
◎ 직업											
직무	(104)	86.5	1.0	.0	1.0	7.7	.0	1.9	1.0	1.0	.0
직무 외	(302)	82.5	1.0	.7	4.3	8.9	1.3	.7	.0	.3	.3
무응답	(75)	52.4	.0	.0	12.7	25.3	2.5	2.5	2.5	.0	.0
무응답	(503)	75.9	1.6	.2	5.0	12.5	1.8	.4	1.8	.6	.2
무응답	(12)	75.0	.0	.0	.0	.0	8.3	.0	.0	16.7	.0
◎ 취미											
취미	(293)	72.7	1.4	.3	6.5	13.0	2.7	.3	2.7	.3	.0
취미 외	(113)	77.9	.0	.0	5.3	14.2	1.8	.0	.0	.0	.9
무응답	(112)	75.0	.9	.0	8.0	11.6	.9	.9	.9	1.8	.0
무응답	(36)	100.0	.0	.0	.0	.0	.0	.0	.0	.0	.0
무응답	(257)	87.2	1.2	.8	1.9	6.6	1.2	.4	.4	.4	.0
무응답	(84)	26.0	.0	.0	11.9	25.0	2.4	2.4	2.4	.0	.0
무응답	(105)	77.1	3.8	.0	.0	12.4	.0	2.9	.0	2.9	1.0
◎ 소득											
소득	(323)	78.3	1.2	.6	4.3	10.8	1.2	.6	.9	1.5	.3
소득 외	(336)	80.7	.6	.0	10.7	11.5	.9	1.2	.0	.3	.0
무응답	(217)	73.7	1.8	.5	5.5	14.3	1.4	.9	.9	.0	.0
무응답	(124)	73.4	1.6	.0	5.6	12.9	3.2	.8	2.4	.0	.0
◎ 연령											
연령	(115)	71.3	2.6	1.7	5.2	11.3	2.6	3.5	.0	.9	.9
연령 외	(885)	78.1	1.0	.1	4.9	11.9	1.5	.5	1.4	.7	.1

<다음장 계속>

<표9-1> 미약류 복용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안

응답 내용	계
[전 체]	100.0
① 성 약품	100.0
② 성 약품	100.0
③ 성 약품	100.0
④ 성 약품	100.0
⑤ 성 약품	100.0
⑥ 성 약품	100.0
⑦ 성 약품	100.0
⑧ 성 약품	100.0
⑨ 성 약품	100.0
⑩ 성 약품	100.0
⑪ 성 약품	100.0
⑫ 성 약품	100.0
⑬ 성 약품	100.0
⑭ 성 약품	100.0
⑮ 성 약품	100.0
⑯ 성 약품	100.0
⑰ 성 약품	100.0
⑱ 성 약품	100.0
⑲ 성 약품	100.0
⑳ 성 약품	100.0
㉑ 성 약품	100.0
㉒ 성 약품	100.0
㉓ 성 약품	100.0
㉔ 성 약품	100.0
㉕ 성 약품	100.0
㉖ 성 약품	100.0
㉗ 성 약품	100.0
㉘ 성 약품	100.0
㉙ 성 약품	100.0
㉚ 성 약품	100.0
㉛ 성 약품	100.0
㉜ 성 약품	100.0
㉝ 성 약품	100.0
㉞ 성 약품	100.0
㉟ 성 약품	100.0
㊱ 성 약품	100.0
㊲ 성 약품	100.0
㊳ 성 약품	100.0
㊴ 성 약품	100.0
㊵ 성 약품	100.0
㊶ 성 약품	100.0
㊷ 성 약품	100.0
㊸ 성 약품	100.0
㊹ 성 약품	100.0
㊺ 성 약품	100.0
㊻ 성 약품	100.0
㊼ 성 약품	100.0
㊽ 성 약품	100.0
㊾ 성 약품	100.0
㊿ 성 약품	100.0

<표10> 미약류 및 약물남용 사례 목격시 신고의향

응답 내용	사례수	신고의향					종합 결과			계
		매우 없음	다소 있음	보통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신고 의향 있음	보통	신고 의향 없음	
[전 체]	(1000)	46.6	33.7	12.2	5.0	2.5	80.3	12.2	7.5	100.0
① 성 약품	(494)	49.6	32.2	10.1	5.1	3.0	81.8	10.1	8.1	100.0
② 성 약품	(506)	43.7	35.2	14.2	4.9	2.0	78.9	14.2	6.9	100.0
③ 성 약품	(181)	39.8	36.5	13.8	5.0	5.0	76.2	13.8	9.9	100.0
④ 성 약품	(190)	39.5	37.9	15.3	4.7	2.6	77.4	15.3	7.4	100.0
⑤ 성 약품	(214)	47.2	33.2	14.0	4.2	1.4	80.4	14.0	5.6	100.0
⑥ 성 약품	(197)	52.3	28.9	10.7	6.1	2.0	81.2	10.7	8.1	100.0
⑦ 성 약품	(218)	52.8	32.8	7.8	5.0	1.9	85.3	7.8	6.9	100.0
⑧ 성 약품	(205)	39.0	40.0	14.1	6.3	.5	79.0	14.1	6.8	100.0
⑨ 성 약품	(159)	49.7	32.7	11.3	5.0	1.3	82.4	11.3	6.3	100.0
⑩ 성 약품	(105)	54.3	28.6	13.3	1.0	2.9	82.9	13.3	3.8	100.0
⑪ 성 약품	(226)	47.6	32.9	11.3	4.5	3.8	80.5	11.3	8.2	100.0
⑫ 성 약품	(105)	50.5	27.6	13.3	5.7	2.9	78.1	13.3	8.6	100.0
⑬ 성 약품	(103)	41.7	37.9	8.7	7.8	3.9	79.6	8.7	11.7	100.0
⑭ 성 약품	(31)	48.4	29.0	16.1	3.2	3.2	77.4	16.1	6.5	100.0
⑮ 성 약품	(464)	42.0	36.9	13.8	5.8	1.5	78.9	13.8	7.3	100.0
⑯ 성 약품	(436)	49.3	31.2	11.0	4.8	3.7	80.5	11.0	8.5	100.0
⑰ 성 약품	(100)	56.0	30.0	10.0	2.0	2.0	86.0	10.0	4.0	100.0
⑱ 성 약품	(104)	60.6	21.2	9.6	5.8	2.9	81.7	9.6	8.7	100.0
⑲ 성 약품	(302)	47.7	38.4	8.3	4.0	1.7	86.1	8.3	5.6	100.0
㉑ 성 약품	(79)	34.2	40.5	11.4	8.9	5.1	74.7	11.4	13.9	100.0
㉒ 성 약품	(503)	45.1	32.0	15.5	4.8	2.6	77.1	15.5	7.4	100.0
㉓ 성 약품	(12)	41.7	50.0	0	8.3	0	91.7	0	8.3	100.0
㉔ 성 약품	(293)	44.4	35.8	12.3	5.5	2.0	80.2	12.3	7.5	100.0
㉕ 성 약품	(113)	55.8	28.3	10.6	3.5	1.8	84.1	10.6	5.3	100.0
㉖ 성 약품	(336)	43.5	31.0	16.1	7.4	2.1	74.4	16.1	9.5	100.0
㉗ 성 약품	(217)	42.9	37.3	12.5	3.7	2.8	80.2	12.5	6.5	100.0
㉘ 성 약품	(257)	41.6	36.6	14.4	5.8	1.6	78.2	14.4	7.4	100.0
㉙ 성 약품	(84)	38.9	39.3	10.7	8.3	4.8	76.2	10.7	13.1	100.0
㉚ 성 약품	(105)	51.4	31.4	11.4	3.8	1.9	82.9	11.4	5.7	100.0
㉛ 성 약품	(323)	52.0	34.1	8.0	3.4	2.5	86.1	8.0	5.9	100.0
㉜ 성 약품	(336)	43.5	31.0	16.1	7.4	2.1	74.4	16.1	9.5	100.0
㉝ 성 약품	(217)	42.9	37.3	12.5	3.7	2.8	80.2	12.5	6.5	100.0
㉞ 성 약품	(124)	47.6	33.9	10.5	4.8	3.2	81.5	10.5	8.1	100.0
㉟ 성 약품	(115)	53.0	27.0	12.2	4.3	3.5	80.0	12.2	7.8	100.0
㊱ 성 약품	(885)	45.8	34.6	12.2	5.1	2.4	80.3	12.2	7.5	100.0

<표11> 중독재활센터 인지도

응답내용	사례수	중독재활센터 인지도		계
		인지	비인지	
[전체]	(1000)	8.3	91.7	100.0
① 성				
남	(494)	10.9	89.1	100.0
여	(506)	5.7	94.3	100.0
② 연령				
19-29	(181)	3.9	96.1	100.0
30-40	(190)	6.3	93.7	100.0
40-50	(214)	10.3	89.7	100.0
50-60	(197)	12.7	87.3	100.0
60 이상	(218)	7.8	92.2	100.0
③ 직업				
사무직	(205)	7.8	92.2	100.0
서비스직	(159)	6.9	93.1	100.0
전문직	(105)	6.7	93.3	100.0
농림수산업	(292)	9.9	90.1	100.0
무직	(105)	9.5	90.5	100.0
학생	(103)	5.8	94.2	100.0
기타	(31)	12.9	87.1	100.0
④ 거주지				
서울	(464)	7.3	92.7	100.0
수도권	(436)	9.4	90.6	100.0
비수도권	(100)	8.0	92.0	100.0
⑤ 교육수준				
초·중·고	(104)	2.9	97.1	100.0
대졸	(302)	10.3	89.7	100.0
대졸이상	(79)	9.8	90.2	100.0
미상	(503)	9.1	90.9	100.0
기타	(12)	.0	100.0	100.0
⑥ 소득수준				
미상	(293)	8.5	91.5	100.0
1인	(113)	11.5	88.5	100.0
2인	(112)	7.1	92.9	100.0
3인	(36)	11.1	88.9	100.0
4인	(257)	6.6	93.4	100.0
5인	(84)	3.6	96.4	100.0
6인	(105)	12.4	87.6	100.0
⑦ 가구형태				
혼합	(323)	6.8	93.2	100.0
혼합	(336)	11.0	89.0	100.0
혼합	(217)	8.8	91.2	100.0
혼합	(124)	4.0	96.0	100.0
⑧ 기타				
외국	(115)	9.6	90.4	100.0
기타	(885)	8.1	91.9	100.0

<표11-1> 중독재활센터 인지경로

응답내용	사례수	중독재활센터 인지경로							계
		가족친구 주변인	대중매체 소셜미디어	의약품 판매점	의약품 판매점	한국민 간단체	교회에서	학교에서	
[전체]	(83)	13.3	75.9	6.0	2.4	1.2	1.2	1.2	100.0
① 성									
남	(54)	14.8	68.5	9.3	3.7	1.9	1.9	1.9	100.0
여	(29)	10.3	89.7	.0	.0	.0	.0	.0	100.0
② 연령									
19-29	(7)	14.3	71.4	.0	.0	.0	.0	14.3	100.0
30-40	(12)	8.3	83.3	.0	.0	8.3	.0	.0	100.0
40-50	(22)	9.1	81.8	9.1	.0	.0	.0	.0	100.0
50-60	(25)	24.0	68.0	12.0	.0	.0	.0	.0	100.0
60 이상	(17)	5.9	82.4	.0	11.8	.0	.0	.0	100.0
③ 직업									
사무직	(16)	12.5	81.3	6.3	.0	.0	.0	.0	100.0
서비스직	(11)	27.3	63.6	.0	9.1	.0	.0	.0	100.0
전문직	(7)	14.3	42.9	14.3	.0	14.3	14.3	100.0	
농림수산업	(29)	13.8	82.8	3.4	.0	.0	.0	.0	100.0
무직	(10)	.0	90.0	10.0	.0	.0	.0	.0	100.0
학생	(6)	16.7	66.7	16.7	.0	.0	.0	.0	100.0
기타	(4)	.0	75.0	.0	25.0	.0	.0	.0	100.0
④ 거주지									
서울	(34)	14.7	76.5	2.9	.0	2.9	2.9	2.9	100.0
수도권	(41)	9.8	78.0	9.8	2.4	.0	.0	.0	100.0
비수도권	(8)	25.0	62.5	.0	12.5	.0	.0	.0	100.0
⑤ 교육수준									
초·중·고	(3)	33.3	66.7	.0	.0	.0	.0	.0	100.0
대졸	(31)	22.6	71.0	3.2	3.2	.0	.0	.0	100.0
대졸이상	(3)	.0	66.7	.0	.0	.0	33.3	.0	100.0
미상	(46)	6.5	80.4	8.7	2.2	2.2	.0	.0	100.0
⑥ 소득수준									
미상	(25)	8.0	80.0	8.0	.0	.0	4.0	.0	100.0
1인	(13)	15.4	69.2	7.7	7.7	.0	.0	.0	100.0
2인	(8)	25.0	62.5	12.5	.0	.0	.0	.0	100.0
3인	(4)	25.0	75.0	.0	.0	.0	.0	.0	100.0
4인	(17)	11.8	88.2	.0	.0	.0	.0	.0	100.0
5인	(3)	.0	66.7	.0	.0	.0	33.3	.0	100.0
6인	(13)	15.4	69.2	7.7	7.7	.0	.0	.0	100.0
⑦ 가구형태									
혼합	(22)	13.6	86.4	.0	.0	.0	.0	.0	100.0
혼합	(37)	13.5	75.7	5.4	2.7	2.7	.0	.0	100.0
혼합	(19)	5.3	68.4	15.8	5.3	.0	5.3	.0	100.0
혼합	(5)	40.0	60.0	.0	.0	.0	.0	.0	100.0
⑧ 기타									
외국	(11)	.0	72.7	18.2	9.1	.0	.0	.0	100.0
기타	(72)	15.3	76.4	4.2	1.4	1.4	1.4	1.4	100.0

*BASE : 중독재활센터 인지자

<표12> 미역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응답 내용	사례수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종합 결과		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	불필요	
[전체]	(1000)	41.7	47.6	8.7	2.0	89.3	10.7	100.0
① 성별								
여성	(494)	39.7	46.4	10.7	3.2	86.0	14.0	100.0
남성	(506)	43.7	48.8	6.7	.8	92.5	7.5	100.0
② 연령								
19~29	(181)	25.4	55.8	13.3	5.5	61.2	18.8	100.0
30~40	(190)	36.8	53.2	8.4	1.6	90.0	10.0	100.0
41~50	(214)	46.7	41.1	10.7	1.4	87.9	12.1	100.0
51~60	(197)	46.2	46.2	7.1	.5	92.4	7.6	100.0
60세 이상	(218)	50.5	43.6	4.6	1.4	94.0	6.0	100.0
③ 직업								
직무	(205)	42.0	49.3	6.3	2.4	91.2	8.8	100.0
주부	(159)	32.1	56.6	10.1	1.3	88.7	11.3	100.0
학생	(105)	38.1	50.5	7.6	3.8	88.6	11.4	100.0
기타	(292)	42.5	45.9	10.6	1.0	88.4	11.6	100.0
직무	(105)	49.5	40.0	8.6	1.9	89.5	10.5	100.0
주부	(103)	45.6	42.7	7.8	3.9	88.3	11.7	100.0
학생	(31)	54.8	38.7	6.5	.0	93.5	6.5	100.0
④ 거주지								
도시	(464)	37.9	51.3	8.6	2.2	89.2	10.8	100.0
읍면	(436)	43.1	46.1	8.9	1.8	89.2	10.8	100.0
군	(100)	53.0	37.0	8.0	2.0	90.0	10.0	100.0
⑤ 소득								
100만원 이하	(104)	47.1	47.1	3.8	1.9	94.2	5.8	100.0
100~300만원	(302)	47.4	44.0	3.6	1.0	91.4	8.6	100.0
300~500만원	(79)	19.0	63.3	12.7	5.1	82.3	17.7	100.0
500만원 이상	(503)	41.0	47.3	8.7	2.0	88.3	11.7	100.0
미응답	(12)	33.3	50.0	6.3	6.3	83.3	16.7	100.0
⑥ 교육								
초·중·고	(293)	39.9	47.4	10.9	1.7	87.4	12.6	100.0
대·석·박	(113)	48.7	36.3	13.3	1.8	85.0	15.0	100.0
기타	(112)	39.3	49.1	8.9	2.7	88.4	11.6	100.0
미응답	(36)	50.0	36.1	8.3	5.6	86.1	13.9	100.0
초·중·고	(257)	45.1	51.4	3.5	.0	96.5	3.5	100.0
대·석·박	(84)	19.0	61.9	13.1	6.0	81.0	19.0	100.0
기타	(105)	48.6	41.9	6.7	2.9	90.5	9.5	100.0
⑦ 성별								
여성	(323)	46.4	44.9	6.5	2.2	91.3	8.7	100.0
남성	(306)	42.9	47.9	8.0	1.2	90.8	9.2	100.0
미응답	(217)	38.7	48.8	10.6	1.8	87.6	12.4	100.0
여성	(124)	31.5	51.6	12.9	4.0	83.1	16.9	100.0
⑧ 연령								
19~29	(115)	40.0	45.2	11.3	3.5	85.2	14.8	100.0
30~40	(885)	41.9	47.9	8.4	1.8	89.8	10.2	100.0

<표13> 미역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

응답 내용	사례수	민간단체 참여 의향				종합 결과		계
		적극 참여	다소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참여 의향 있음	참여 의향 없음	
[전체]	(1000)	7.5	37.0	40.3	15.2	44.5	55.5	100.0
① 성별								
여성	(494)	8.9	36.0	36.4	18.6	44.9	55.1	100.0
남성	(506)	6.1	37.9	44.1	11.9	44.1	55.9	100.0
② 연령								
19~29	(181)	4.4	27.6	46.4	21.5	32.0	68.0	100.0
30~40	(190)	5.8	33.7	40.0	20.5	39.5	60.5	100.0
41~50	(214)	6.1	43.5	38.3	12.1	49.5	50.5	100.0
51~60	(197)	9.6	41.6	39.6	9.1	51.3	48.7	100.0
60세 이상	(218)	11.0	37.2	38.1	13.8	48.2	51.8	100.0
③ 직업								
직무	(205)	3.9	39.0	42.0	15.1	42.9	57.1	100.0
주부	(159)	5.7	36.4	41.5	14.5	44.0	56.0	100.0
학생	(105)	13.3	31.4	41.0	14.3	44.6	55.2	100.0
기타	(292)	8.2	35.3	40.1	16.4	43.5	56.5	100.0
직무	(105)	9.5	40.0	36.2	14.3	49.5	50.5	100.0
주부	(103)	8.7	38.8	35.9	15.5	48.5	51.5	100.0
학생	(31)	3.2	32.3	51.6	12.9	35.5	64.5	100.0
④ 거주지								
도시	(464)	6.0	37.3	41.4	15.3	43.3	56.7	100.0
읍면	(436)	9.4	33.7	41.7	15.1	43.1	56.9	100.0
군	(100)	6.0	50.0	29.0	15.0	56.0	44.0	100.0
⑤ 소득								
100만원 이하	(104)	14.4	32.7	35.6	17.3	47.1	52.9	100.0
100~300만원	(302)	9.3	43.0	38.1	9.6	52.3	47.7	100.0
300~500만원	(79)	3.8	27.8	46.8	21.5	31.6	68.4	100.0
500만원 이상	(503)	5.8	36.0	41.9	16.3	41.7	58.3	100.0
미응답	(12)	.0	25.0	25.0	50.0	25.0	75.0	100.0
⑥ 교육								
초·중·고	(293)	7.8	36.9	37.2	18.1	44.7	55.3	100.0
대·석·박	(113)	14.2	36.3	39.8	9.7	50.4	49.6	100.0
기타	(112)	4.5	42.0	39.4	23.2	46.4	53.6	100.0
미응답	(36)	5.6	38.9	41.7	13.9	44.4	55.6	100.0
초·중·고	(257)	5.4	38.1	47.1	9.3	43.6	56.4	100.0
대·석·박	(84)	3.6	28.2	48.8	21.4	29.8	70.2	100.0
기타	(105)	11.4	38.1	38.2	14.3	49.5	50.5	100.0
⑦ 성별								
여성	(323)	10.2	40.6	34.4	14.9	50.8	49.2	100.0
남성	(306)	7.7	39.6	40.2	12.5	47.3	52.7	100.0
미응답	(217)	6.5	32.3	46.1	15.2	38.7	61.3	100.0
여성	(124)	1.6	29.0	46.0	23.4	30.6	69.4	100.0
⑧ 연령								
19~29	(115)	10.4	32.2	40.9	16.5	42.6	57.4	100.0
30~40	(885)	7.1	37.6	40.2	15.0	44.7	55.3	100.0

<표14-1> 자원봉사 참여의향

응답 내용	사례수	자원봉사 참여의향				종합 결과		계
		정규 참여	다소 있는 편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참여 의향 있음	참여 의향 없음	
[전체]	(445)	13.7	67.9	17.1	1.3	81.6	18.4	100.0
① 성별								
여성	(222)	16.7	65.8	16.7	.9	82.4	17.6	100.0
남성	(223)	10.8	70.0	17.5	1.8	80.7	19.3	100.0
② 연령								
19~29	(58)	8.6	72.4	19.0	.0	81.0	19.0	100.0
30~40	(75)	10.7	66.7	21.3	1.3	77.3	22.7	100.0
40~50	(106)	10.4	74.5	15.1	.0	84.9	15.1	100.0
50~60	(101)	13.9	72.3	11.9	2.0	86.1	13.9	100.0
60세 이상	(105)	21.9	55.2	20.0	2.9	77.1	22.9	100.0
③ 지역								
시	(88)	6.8	68.2	23.9	1.1	75.0	25.0	100.0
군	(70)	10.0	74.3	15.7	.0	84.3	15.7	100.0
구	(47)	17.0	66.0	12.8	4.3	83.0	17.0	100.0
읍	(127)	16.5	63.0	19.9	1.6	79.5	20.5	100.0
면	(52)	15.4	67.3	17.3	.0	82.7	17.3	100.0
동	(50)	18.0	72.0	10.0	.0	90.0	10.0	100.0
읍면동	(11)	18.2	72.7	.0	9.1	90.9	9.1	100.0
④ 직업								
사무직	(201)	10.9	64.7	23.4	1.0	75.6	24.4	100.0
서비스직	(188)	17.0	70.7	11.2	1.1	87.8	12.2	100.0
농림수산업	(56)	12.5	69.6	14.3	3.6	82.1	17.9	100.0
⑤ 학력								
초	(49)	20.4	57.1	18.4	4.1	77.6	22.4	100.0
중	(158)	13.9	67.1	18.4	.6	81.0	19.0	100.0
고	(25)	8.0	64.0	28.0	.0	72.0	28.0	100.0
대	(210)	12.9	71.4	14.3	1.4	84.3	15.7	100.0
석	(3)	.0	66.7	33.3	.0	66.7	33.3	100.0
⑥ 소득								
이	(131)	12.2	74.0	13.0	.8	86.3	13.7	100.0
하	(57)	24.6	61.4	12.3	1.8	86.0	14.0	100.0
중	(52)	7.7	75.0	17.3	.0	82.7	17.3	100.0
상	(16)	12.5	81.3	6.3	.0	93.8	6.3	100.0
무	(112)	8.9	67.9	19.6	3.6	76.8	23.2	100.0
미	(25)	8.0	64.0	28.0	.0	72.0	28.0	100.0
알	(52)	25.0	50.0	25.0	.0	75.0	25.0	100.0
⑦ 교육								
초	(164)	17.1	62.8	17.1	3.0	79.9	20.1	100.0
중	(159)	13.2	69.8	17.0	.0	83.0	17.0	100.0
고	(84)	11.9	70.2	16.7	1.2	82.1	17.9	100.0
대	(38)	5.3	76.3	18.4	.0	81.6	18.4	100.0
⑧ 기타								
외국인	(49)	22.4	67.3	10.2	.0	89.8	10.2	100.0
기타	(396)	12.6	67.9	17.9	1.5	80.6	19.4	100.0

*BASE : 민간단체 참여 의향자

<표14-2> 민간단체 기부의향

응답 내용	사례수	민간단체 기부의향				종합 결과		계
		정규 기부하고 싶다	다소 있는 편이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기부 의향 있음	기부 의향 없음	
[전체]	(445)	7.0	56.6	32.8	3.6	63.6	36.4	100.0
① 성별								
여성	(222)	6.8	59.0	31.1	3.2	65.8	34.2	100.0
남성	(223)	7.2	54.3	34.5	4.0	61.4	38.6	100.0
② 연령								
19~29	(58)	5.2	50.0	43.1	1.7	55.2	44.8	100.0
30~40	(75)	5.3	52.0	41.3	1.3	57.3	42.7	100.0
40~50	(106)	4.7	64.2	28.3	2.8	68.9	31.1	100.0
50~60	(101)	8.9	57.4	27.7	5.0	67.3	32.7	100.0
60세 이상	(105)	6.6	55.2	30.5	5.7	63.8	36.2	100.0
③ 지역								
시	(88)	.0	58.0	39.8	2.3	58.0	42.0	100.0
군	(70)	5.7	56.6	32.9	2.9	64.3	35.7	100.0
구	(47)	8.5	71.7	27.7	2.1	70.2	29.8	100.0
읍	(127)	11.0	48.8	34.6	5.5	59.6	40.2	100.0
면	(52)	7.7	61.5	28.8	1.9	69.2	30.8	100.0
동	(50)	8.0	58.0	30.0	4.0	66.0	34.0	100.0
읍면동	(11)	9.1	72.7	9.1	9.1	81.8	18.2	100.0
④ 직업								
사무직	(201)	3.0	58.7	37.3	1.0	61.7	38.3	100.0
서비스직	(188)	11.2	54.8	28.2	5.9	66.0	34.0	100.0
농림수산업	(56)	7.1	55.4	32.1	5.4	62.5	37.5	100.0
⑤ 학력								
초	(49)	6.1	46.9	38.8	8.2	53.1	46.9	100.0
중	(158)	8.9	54.4	34.2	2.5	63.3	36.7	100.0
고	(25)	4.0	44.0	48.0	4.0	48.0	52.0	100.0
대	(210)	6.2	62.4	28.1	3.3	68.6	31.4	100.0
석	(3)	.0	33.3	66.7	.0	33.3	66.7	100.0
⑥ 소득								
이	(131)	6.1	59.5	31.3	3.1	65.6	34.4	100.0
하	(57)	10.5	56.1	31.6	1.8	66.7	33.3	100.0
중	(52)	5.8	61.5	28.8	3.8	67.3	32.7	100.0
상	(16)	6.3	62.5	25.0	3.3	68.8	31.3	100.0
무	(112)	5.4	57.1	32.1	5.4	62.5	37.5	100.0
미	(25)	4.0	44.0	48.0	4.0	48.0	52.0	100.0
알	(52)	11.5	48.1	38.5	1.9	59.6	40.4	100.0
⑦ 교육								
초	(164)	8.5	49.4	36.6	5.5	57.9	42.1	100.0
중	(159)	5.0	65.4	27.7	1.9	70.4	29.6	100.0
고	(84)	9.5	58.3	28.6	3.6	67.9	32.1	100.0
대	(38)	2.6	47.4	47.4	2.6	50.0	50.0	100.0
⑧ 기타								
외국인	(49)	8.2	75.5	14.3	2.0	83.7	16.3	100.0
기타	(396)	6.8	54.3	35.1	3.8	61.1	38.9	100.0

*BASE : 민간단체 참여 의향자

별첨2. 조사 설문지

2015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도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월드리서치】**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의뢰를 받아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알아보
 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과정에서 알려진 모든 사항은 통계법 33조에 의거 철저
 히 비밀로 보장되고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주월드리서치 연구팀

SQ1. 응답자 현 거주지역 (* 면접원 기재)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2. 지역크기(* 면접원 기재)

- ①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군/읍/면

SQ3. 선생님 '연세'는 현재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2015년 12월 1일 기준 만19세 이상]

SQ4. 성별 (* 면접원 기재)

- ① 남자 ② 여자

본 조사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라는 말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같은 마약류, 본드나
 부탄가스 등 환각흡입물질, 잘못 사용되는 처방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문1. 마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2조 5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하는데, 귀하께서 생
 각하시기에 우리 사회의 일반시민들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②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문2. 그럼, 귀하께서는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다소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문3. 귀하께서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따른 피해나 위험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①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②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③ 학교 등에서의 교육을 통해 ④ 민간단체의 예방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해
 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⑥ 주변사람을 통해
 ⑦ 인터넷을 통해 ⑧ 영화를 통해
 ⑨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_____

2)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문4. 귀하 또는 귀하의 주변에서 병원 또는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와)과 같은 약들을 사용해 보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Table with 3 columns: Question options (1-6), '1. 있다', '2. 없다'.

조기유학생이 연간 3만명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기유학생 대부분은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 국...

문5. 조기유학생들이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의 의무화
2) 학교에서 약물예방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
3) 마약류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출입국 통제
4)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의 자문에 맞춘
5) 유학생이 많은 곳에 마약류 대책반을 파견하여 지원
6)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문6. 만약 치료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마약류 중독 회복자가 같은 지역에서 생활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이웃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2)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어울리지는 않겠다
3) 이웃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겠다
4) 관심을 갖지 않겠다
5)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사회복귀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7. 귀하께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과 관련하여, _____을 접해 본적이 있습니까?

Table with 3 columns: Question options (A-E), '1. 예', '2. 아니오'.

문8. 귀하께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3)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
4) 마약류 중독자 치료 사업
5)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4)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문9.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2)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3)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
4) 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5)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문9-1. 마약류 등 남용을 막기 위한 홍보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TV 광고(DMB 광고 포함)
2) 신문·잡지 광고
3) 라디오 광고
4)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광고
5) 인터넷 광고
6) 거리 캠페인 광고
7) 홍보책자 배포
8) 전광판 광고
9) 기타(구체적 기록)

문10. 만약 주변에서 마약류나 약물남용 사례를 목격하게 된다면, 신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신고의향 매우 크다
2) 다소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없다
5) 전혀 없다

5) 중독재활센터 인지도

문11. 귀하께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중독자 재활시설인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구 '송천재활센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혹은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1) 알고 있다 [▶문11-1로 이동]
2) 모른다 [▶문12로 이동]

문11-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구 '송천재활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1) 가족, 친구, 주변인을 통해
2)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소개, 홍보를 통해서
3) 식약청, 보건소 등 국가기관을 통해서
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나 병의원을 통해서
5)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6)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 위한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 및 참여의향

문12. 귀하께서는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고 본다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13. 귀하께서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적극 참여하고 싶다	② 다소 있는 편이다	▶문14-1과 문14-2로 이동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통계질문으로 이동

문14-1. 귀하께서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적극 참여하고 싶다 ② 다소 있는 편이다
-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문14-2. 귀하께서는 민간단체에 기부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적극 기부하고 싶다 ② 다소 있는 편이다
-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8) 통계처리 문항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재 ④ 대졸 이상

DQ2.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① 전문/자유직 ② 사무/기술직 ③ 경영/관리직
- ④ 판매/서비스직 ⑤ 일용/작업직 ⑥ 생산/운수직
- ⑦ (전업)주부 ⑧ 대학(원)생 ⑨ 자영업
- ⑩ 농림축수산업 ⑪ 무직 ⑫ 기타_____

DQ3. 귀하를 포함한 귀하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정기적인 수입과 함께 상여금이나 부수입 등은 12개월로 나누어 합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 ④ 300-349만원 ⑤ 350-399만원 ⑥ 400-449만원
- ⑦ 450-499만원 ⑧ 500-599만원 ⑨ 600-699만원
- ⑩ 700만원 이상

DQ4. 귀하께서는 해외유학, 어학연수, 정기출장, 해외지사 파견 등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 ① 있다 ② 없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주일드리서치

#137-8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64-9 월드빌딩 www.wrc.co.kr
대표전화 02) 6188-6000 대표팩스 02) 6188-6008